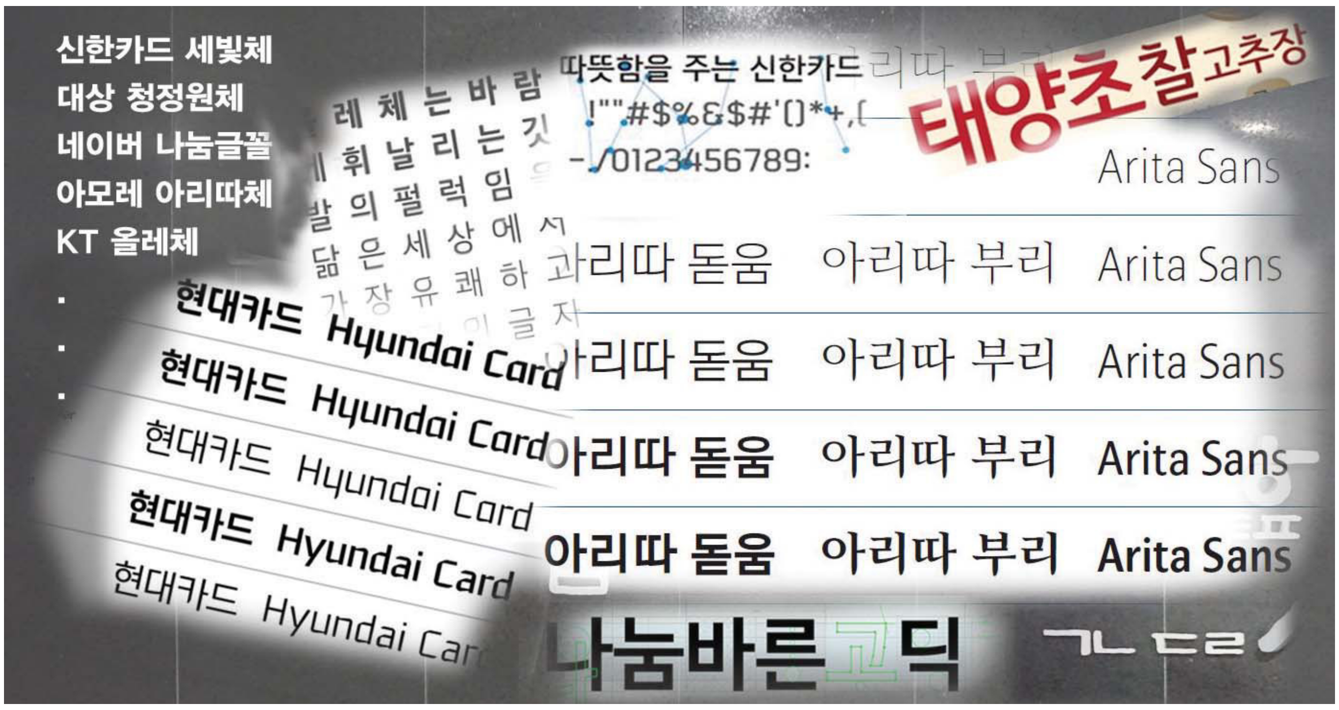


'국민 두뇌' 네이버 지식인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제331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7일>

코스피	2005.84	(+15.19)
코스닥	679.83	(−9.23)
금리(국고채 3년)	1.59	(+0.01)
환율(원·달러)	1161.30	(−5.70)



한글 서체에 담은 기업철학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끌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글자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드러나며 한글 지키기 노력에 더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는 국내 최초로 기업 서체를 개발한 기업이다.

2004년 기업 전용 서체 '유앤아이'를 개발했으며 현재까지 현대카드 등 상품에는 물론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유앤아이는 고객(YOU)과 현대카드(I)를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서체 모든 글자에 현대카드의 물리적인 형태와 각도, 비율(1.6:1)을 포함시켰다. 최초 개발 후 8년 간의 보완 작업을 거쳤으면 2012년 제목뿐만 아니라 일반 본문에서도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완성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아리따체'를 개발했다.

'아리따'는 중국 '시경'의 첫 번째 시인 관저의 한 구절 '아리따운 아가씨-요조숙녀'에서 따온 단어로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여성이라는 의미다.

2006년부터는 한글 글꼴인 '아리따 돋움M'·'아리따 돋움SB'·'아리따 돋움L'·'아리따 돋움B'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아리따 부리' 서체를 개발했다. 아리따 부리는 단아하고 지적인 현대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글꼴에 담았다.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모든 아리따 체는 개발과 동시에 일반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기업 독자개발 '한글서체' 눈길

무료 보급… 한글문화 발전 기여
이미지·정체성 담아 마케팅 활용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2008년 '나눔글꼴'을 내놓았다.

종이뿐만 아니라 화면에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글꼴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발된 나눔글꼴은 한글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총 7종의 폰트가 개발된 후 무료 배포됐다. 한글날을 맞아 '나눔옛한글', '나눔바른펜' 등 새로운 서체 3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KT(대표 황창규)는 2009년 올레(olleh) 브랜드 출시와 함께 '올레체'를 개발했다.

서체에는 '혁신의 휘날림'이 적용됐으며 보완 작업을 통해 지난해 올레체 네오'로 업그레이드 됐다. 작은 화면 내에서 글자를 최대한 크고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디테일을 조정해 가독성을 높이고 서체의 굵기를 6종으로 나눠 사용자의 편의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자음 'ㅇ'의 휘날림은 혁신의 깃발을 의미한다.

인터파크(대표 김동업)도 같은 해 '인터파크 고딕체'를 개발해 현재까지 기업 로고의 글씨체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파크 고딕체는 굵고 뚜렷해 가독성이 좋으며 서체의 가로 길이가 길어 든든한 느낌도 준다. 상업적인 용도 외에는 누구나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상(대표 명형섭)은 2013년 '청정원 명조체'와 '청정원 고딕체' 2종을 개발했다.

지난해 새 BI(브랜드이미지통합) 작업과 함께 일관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적인 서체를 내놓았다. 현재 제품 패키지와 청정원 브랜드 대외홍보물에 사용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디자인 등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체 안정성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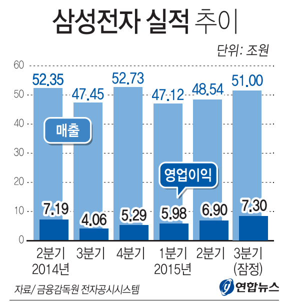
신한카드(대표 위성호)는 같은 해 CI(기업이미지통합) 작업을 하며 '신한세빛체'를 개발했다.

신한세빛체는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빛'이라는 의미로 제작됐다. 균형적인 공간감, 안정적인 가독성, 유니크함 등을 서체에 담았다. 국문과 영문의 자소획이 통일감 있도록 직선과 사선을 활용해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디자인 된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역할 뿐 아니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여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한글 서체를 개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완성도 있는 글꼴 개발을 통해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7조3000억원

삼성전자, 올 3분기 '깜짝실적' 발표
반도체 선전·환율 덕… 4분기째 반등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7일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의 올해 3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분기(매출 48조5400억원·영업이익 6조9000억원) 대비 삼성전자의 매출은 5.07%, 영업이익은 5.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매출 47조4500억원·영업이익 4조600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7.48%, 영업이익은 79.80% 올랐다. 삼성전자가 매출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4분기(52조7300억원) 이후 3분기 만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반등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22개 증권사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6조5865억원이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4조600억원으로 약 3년 만에 처음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작년 4분기 5조원대로 회복했다. 올해 1분기 5조원 후반대, 2분기 6조원 후반대로 올라서 상승세를 이어왔다.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반도체와 소형 OLED 패널 등 부품 사업이 견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는 D램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으나 미세공정 기술력 우위와 시스템LSI 사업부의 실적 반등으로 꾸준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소형 OLED를 탑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형 OLED 부문 글로벌 1위인 삼성의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TV와 생활가전도 경기침체 국면에서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환율도 이번 실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부품 대금을 대부분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를 누린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으로 TV 등은 성수기를 맞이하고 우호적인 환율 흐름이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폰 6S 시리즈 대응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와 반도체의 계절적 비수기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

The lighting door displays blocking emergency exits at subway stations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lighting window displays installed on screen doors after the fatal accident at Gangnam subway station in Augus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more serious.

It is revealed that 95% of Seoul subway stations' screen door exits have the lighting door display.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people being crushed to death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re a crowd of people surge toward the exits. In order to avoid such accident, the protective barriers that the lighting window display are installed on should be open and shu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have been trying to find a way to sort the problem out collaborating with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however, it does not seem like it is going we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dvertising agents take legal actions if they get rid of the lighting door displays. According to Lee Eon-Ju, the billboards are installed in 8 of subway lines which accounts for 95% of the whole subway stations in Seoul. Thus,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danger in an emergency situation.

Moreover, there is another problem about the stick-on billboards that are stuck on fixed doors since it is hard to break them with a hammer. There are only 12 subway stations in operation without the lighting door displays including line 2 in Shin-sul-dong and line 7 in Jang-am stations in Seoul.

지난 8월 말께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한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가 지난 1990년대 초 미국전화전신회사(AT&T)의 자회사인 네트워크 시스템스의 이사로 방한했을 때 경험한 '기생 파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단행한 개각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온 하세 히로시 중의원을 교육장관인 문부과학상으로 기용했다.

정치

▲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은 "어떤 결정도 한국과 완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청와대가 최근 이른바 '정치인 각료'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물밑으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결정을 앞두고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틀만인 8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이른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 25만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는 기사 개인이 소유한 '지입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기관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형 그대로 살린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본'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본과 해설서.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교보문고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한글날을 앞두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을 그대로 살린 복간본을 출간, 이달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가 25만원. /연합뉴스

산업·경제

▲  반도체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3분기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도체는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고 소형 OLED 디스플레이는 수요확대에 힘입어 '깜짝 실적'에 힘을 더했다.

▲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iN'**에 지난 13년간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총 3억6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관련해 네이버는 7일 지식iN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각각 1억5000만건, 2억10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이용자 수는 총 4400만명에 달한다.

▲ 2000년대 초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1위를 지켰던 '강남 쏘나타' **렉서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렉서스는 올해 1~9월 5300대 판매돼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했다.

▲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6·S6엣지·노트5·S6엣지플러스에 대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한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69%(10만원) 오른 125만1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가 주당 12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월30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수익형 부동산** 시장 호조세 속에 대표 수익형 상품인 상가가 투자 대세로 자리잡으며 신흥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도체·OLED, 삼성전자 실적 쌍끌이 견인

영업익 7조3000억 깜짝실적
DS 부품사업이 실적 견인
CE는 선방, IM은 제자리



반도체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3분기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도체는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고, 소형 OLED 디스플레이는 수요확대에 힘입어 '깜짝 실적'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환율효과로 이번 실적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7일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의 올해 3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업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맡고 있는 DS부문의 부품 사업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2개 분기 연속 부품 사업부문의 실적 호조가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이라며 "부품 사업부의 가치 재조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에는 3조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관측되는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원가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낸드 플래시의 수익도 개선됐고, 시스템반도체 역시 애플 아이폰의 A9칩 생산 등 물량 확대가 이어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문은 3분기에 약 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가격 약세 우려가 예상됐으나 OLED 패널의 수익성 확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은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OLED 패널을 적용했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OLED 패널 탑재를 늘리면서 수익이 크게 개선됐다.

여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대부분이 달러로 결재하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은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IM부문은 전분기(2조7600억원)와 비슷한 2조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증가했으나 중저가 제품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판매단가(ASP)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E부문은 3분기에 4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의 역성장 속에서도 판매 가격 인하 등으로 TV 판매량이 소폭 늘었고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실적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면서도 "이달 말 실적발표에서 서프라이즈의 원인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단순 환율 효과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스마트폰 실적은 '답보상태'

프리미엄 라인업 효과 미미
4분기 실적 하락 지속 전망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업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지만 주력분야인 스마트폰 사업(IM 부문)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등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실적 개선에 나섰지만 눈에 띌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추산하는 IM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3200억원으로 전 분기인 2분기(2조7600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미엄과 보급형 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 출시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8000만대를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평균판매단가(ASP)는 오히려 하락해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플러스 등 전략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엣지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와 마케팅 비용 증가를 내세웠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과 저가업체인 샤오미와 화웨이 등에 둘러싸인 '샌드위치 위기'를 타개할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략 모델인 갤럭시노트5와 대화면폰 갤럭시S6엣지 플러스의 출시일을 한 달이나 앞당겼다. 여기에 저가시장 공략을 위해 갤럭시A·E·J 시리즈 신제품을 지속 출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IM부문 4분기 실적도 어두울 전망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저가폰이 힘을 보탰다"며 "4분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추가적인 중저가폰 판매 비중 증가에 의해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FIFA이어 유엔도 뇌물 스캔들… 전 총회 의장 中서 130만 달러 수수

세금관련법 위반 혐의 적용
예술품·부동산 매입용 주장



제68차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존 애쉬(61)가 6일(현지시간) 뇌물수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사진은 이날 프릿 바라라 뉴욕남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애쉬 등 관련 유엔 관리 6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제68차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존 애쉬(61)가 6일(현지시간) 뇌물수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미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애쉬 전 의장은 2013~2014년 유엔총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카오의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한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130만 달러(15억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 창설 70주년 이래 보기 드문 부패 사건으로 기록되며 오점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프릿 바라라 뉴욕남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애쉬 전 의장을 이날 오전 뉴욕 돕스페리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5명과 함께 기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애쉬 전 의장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세금관련법 위반 혐의가 일단 적용됐다.

바라라 검사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애쉬 전 의장은 카리브해 섬나라인 안티구아 바부다 출신으로 이 나라의 유엔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애쉬 전 의장은 마카오 부동산재벌 응랍셍(68)으로부터 50만 달러(5억8000만원)가 넘는 뇌물을 받았다. 그 대가로 유엔이 후원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회의시설인 '마카오 콘퍼런스 센터'가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는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실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응랍셍의 부하직원인 제프 인(29)과 유엔 주재 도미니카공화국 차석대사를 지낸 프란시스 로렌조(48)가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의 순키안입 그룹의 회장인 응랍셍은 로렌조에게 매달 2만 달러를 월급 형식으로 지급했으며, 로렌조의 친척이 운영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한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인은 수사관들에게 "응 회장은 컨벤션센터 건립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유엔이 행동에 나서도록 하려고 자금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응 회장이 뉴욕에 설립한 비정부기구 사무실 관계자 2명도 이 돈의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쉬 전 의장은 아울러 유엔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또다른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80만 달러(9억3000만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의 일부는 당시 안티구아 바부다의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무총장은 존 애쉬 전 의장에게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충격을 받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공부 안하는 의원들… 피감기관에 쩔쩔 매"

| 인터뷰 |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김수경 청년위원장



"기자님, 국회의원들 보고 공부 좀 하라고 써주세요."

19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마무리를 하루 앞둔 7일. 국정감사 NGO(비정부민간기구)모니터단의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경(32)씨의 말이다. 올해 국감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800여명의 청년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씨는 7년째 대부분 대학생인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들이 현장을 지키며 정성스레 작성한 국감 모니터링 보고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김씨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나왔지만 올해는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얼마나 국감 준비를 안했는지 피감기관장의 반박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김씨는 "모니터링하는 학생들이 국감장을 다녀와서는 '피감기관에게 의원들이 발린다(상대방에게 힘도 못 써보고 지는 상황)'고 서슴없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라면 피감기관을 불러놓고 제대로 질문을 해서 치고 나와야 지켜보는 학생들도 통쾌하지 않겠느냐. 전문성 있는 피감기관장을 불러다 놓고 공부를 안하니 반박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인 꼴불견은 또 있었다.

7년째 자원봉사자 안내·지도 국감 준비수준 척보면 알아

전문성 결여… 반박은 커녕 지난해 질의 되풀이 꼴불견

김씨는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다 하고 간다. 지난해 국감의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나 영상까지 모두 보고 간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난해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 들으면 바로 안다"며 "의원들이 지난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피감기관도 지난해와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보고 와서 실망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의원들이 단지 지난해 국감 내용만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다. 오후 국감 질의에 나선 의원이 오전에 동료 의원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한다.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니 오전에 다른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날이면 학생들이 김씨에게 와서 던지는 질문이 있다. "출석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의원들은 지키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김씨는 해당 의원이 당직을 맡고 있는 등의 사정을 말해 준다. 당직을 수행하다보니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당직을 맡고 있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김씨는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물어보니) 할말이 없더라구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느낀 실망감은 상상 이상이다. 김씨는 "어떤 학생은 '(의원에게서) 똥냄새가 난다'고 적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청 한켠의 모니터단 사무실에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공간이 있다. '한마디 써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공간이다. 바로 그 공간에 어느 학생이 국감장을 다녀와서 적어놓은 평가다.

김씨는 "의외로 여당 의원이지만 소신있게 질의하는 의원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올해는 내년에 있는 총선 때문인지 의원들이 딴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감NGO모니터단은 올해로 17년째 국감을 모니터링 해 왔다. 20대 국회가 출범해 국감을 하게 되면 스무번째 국감 모니터링이 머지 않았다. 그때쯤이면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국감 모니터링을 맡게 된다. 과연 그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보게 될까. 기자도 김씨도 자못 궁금하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해양플랜트 외 상선부문서도 5년 전부터 1조 악성채권

정무위 국감 핫이슈 '대우조선 부실논란'

강기정 의원, 산은 제출 경영컨설팅 보고서 분석 진웅섭 금감원장 "회사 소명 후 감리여부 결정"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부문 손실 이전부터 상선부문에서 거액의 악성채권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출한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년 11월 글로벌 경제위기로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2011년 11월 8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1월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2달 동안 정예인력 20명이 투입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측은 수조원의 손실이 미경험 해양플랜트 수주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부문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상선부문에서 선박 인도 후에 잔금을 받지 못해 2010년 말부터 비정상적인 장기매출채권이 급증했다. 해양플랜트부문 손실 이전부터 상선부문에서 거액의 악성채권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2011년 9월 기준으로 계상된 장기매출채권 1조6320억원은 만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3년 3개월이 경과한 2014년 12월 현재도 미회수 잔액이 1조604억원이나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와 지급조건을 변경했지만 변경된 지급조건 하에서도 분할 상환 예정금액이 연체가 되는 등 부실화 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이 45% 수준인 4749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양플랜트 손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장기매출채권의 경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따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선박인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12년 분할상환조건, 3년 만기 일시납 외 4년 분할 상환조건 등의 방법으로 마치 받을 수 있는 채권인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 동종 업계인 삼성중공업은 장기매출채권 비중을 매출액대비 2%정도로 관리하고(대우조선해양은 약15%),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는 100%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3년이 초과한 매출채권 등은 대손충당금을 100% 쌓도록 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피해 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과 같이 조건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에는 추가로 5855억원을 적립하여야 한다. 2011년 시점에서 엄밀히 본다면 최소 1조604억만큼 이익이 부풀려진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문제점을 환기시키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기매출채권 급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면서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매출채권감축률 지표를 신규로 생성하고 전년말 잔액 대비 20% 이상 감축목표만 설정해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 설정 회피를 묵인해줬다.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진과 독립성을 갖는 상근감사위원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해놓고도 비상근상무이사 선임으로 갈음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사실상 포기해버렸다.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이전에도 악성채권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며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정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삼정회계법인의 경영실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사 결과를 포함해서 장기매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받아본 후 감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영실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당장 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63rd
ANNIVERSARY
10월 9일
한화그룹 창립 63주년
불꽃 같은 사람이 되거라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정확히 힘을 발휘하는 불꽃처럼
바르고 정직한 사람
–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 회장 –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정직한 불꽃이 되겠습니다
Hanwha
Creative Economy
창조경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성장,
한화그룹이 응원합니다

"TPP는 기업 로비의 결과물"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자유무역 확대는 거짓"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6일(현지시간) 루스벨트 연구소 애덤 허쉬 교수와 공동으로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TPP 협정 체결 국가들은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국가 간 무역과 투자 관계를 관리하는 협정으로 각국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로비 때문에 맺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자유무역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제품 시장 개방을 막으려고 하자 협상을 그만두려고 했고, 호주는 미국과 멕시코가 설탕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려고 한 데 대해 반발했다. 미국은 또 일본이 쌀 수입을 통제하려는 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와 허쉬 교수는 각 국가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한 업종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투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업종이라면서 "자유무역과 상충하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소 5년'으로 인정한 것도 자유무역과는 배치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 대법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자 약품 개발이 폭발적으로 진행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특허를 인정한 TPP는 사실상 자유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가뭄' 물부족 심각… 12만명에 비상급수

강원 최다 8만5542명

올해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비상급수를 받은 인구가 1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2012년~2015년 8월) 비상급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의 비상급수 인원은 12만211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만55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경북(2만4938명), 인천(8727명), 경기(1595명), 충북(637명), 충남(425명), 전북(255명) 등의 순이었다.

비상급수는 시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받거나 급수차로 물을 공급받는 상황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물 부족으로 비상급수가 이뤄진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의존하는 등 대체로 수도 시설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상급수 인원은 2012년 1만2920명, 2013년 4만5695명, 지난해 2만2078명으로 파악됐다. 올 8월까지 비상급수 인원만으로도 작년의 5.5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아직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인구가 200만명이 넘는다"며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맞춤형 기초급여' 신규 수급자 7만명뿐

예상 목표치 한참 미달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이른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 25만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전체 수급자는 141만90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애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4년말 134만명에서 159만명으로 25만명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제도 도입후 9월 말까지 실제 증가한 신규 수급자는 7만90명에 그쳐 정부 예상 수치보다 훨씬 적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신청탈락자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급여 중지된 가구 명단을 기초단체에 내려 보내 신규 수급자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한방진료, 실손보험 보장되나

정무위 국정감사 대중요법 제외 형평성 지적

진웅섭 금감원장 "이달 중 접점 찾을 것"



금융감독원이 한방 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도수치료' 같은 생소한 양방 진료도 실손보험에 포함되는데 대중화한 한방 요법들이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평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고 진 원장은 "알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방치료에 대한 한방의료업계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지자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때 한방 치료비를 보장범위에서 전면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업계는 물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까지 나서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하자 실손보험 적용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카트 수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일자리 대장정'을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카트 수거 작업을 하며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5차 소환

정치권 유착 정조준 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인 8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검찰 소환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의 조사가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등 배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5차 소환 조사에서는 포스코와 정치권 유착에 의한 특혜 의혹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을 맺는 사항들을 정 전 회장에게 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 등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준 배경을 규명했다. 이 전 의원이 2009년 포스코 경영에 개입해 정 전 회장이 선임되도록 힘을 쓰고 당시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혜 의혹을 받는 협력사 중에는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일감을 대량 수주한 청소용역업체 이앤씨의 경우, 대표 한모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를 맡았는데 이 의원은 당시 MB연대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 역시 이 전 의원처럼 지역 현안이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 전 회장의 5차 소환 조사에서는 이 전 의원뿐 아니라 이 의원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번 5차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actor@

'이태원 살인사건' 18년 만에 재판 재개

'과거·현재' 용의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檢 '무죄판결·목격자' 에드워드 리 증인 신청
리 아버지 "잘못된 일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18년 만에 재개된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에드워드 리를 검찰이 증인으로 세울 방침임에 따라 과거, 현재 용의자의 법정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아더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달 23일 1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진범을 가르기 위해 사건 현장의 목격자이자 과거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다가 단독 범행이라는 오해를 받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지난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리의 아버지인 이모씨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를 살해하고 친구인 에드워드(리)까지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18년 동안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석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8년 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에드워드의 당시 기억이 흐려질 리가 없다. '나조차도 2500페이지에 이르는 모든 공판기록을 다 외울 정도"라며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패터슨 측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8년 전 사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김과 동시에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검찰, 향군 압수수색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관계자들이 재향군인회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수사

7일 이임식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나는 최윤희(62) 합참의장이 방산비리 연루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도입 당시인 2012년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의장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며 수상한 자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합수단은 최 의장이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최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 의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난다. /연미란 기자

'여성범죄 취약' 주차장, 전수 점검 나선다

경찰청, 생활치안 대책 마련
부패경찰 '원스트라이크아웃'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 점검에 나선다. 또 부패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징계시효기간 주요 보직으로 발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치안 강화대책 및 복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단 한번의 안이함과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생활치안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12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다음 달 22일까지 지자치단체와 합동 전수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주와 협의해 CCTV 설치, 경비인력 증원 등 방범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와 목격자는 관할 경찰서가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게 해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고나 제지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이전 단계라도 지속적인 가해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12신고 시 아동이나 여성의 비명, 숨소리 등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살인, 강도 등에 해당하는 '코드0' 사건으로 간주해 모든 가용 경찰력을 출동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자체, 지방의회 등과 협조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형건축물에도 범죄예방시설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무기강 확립 분야에서 경찰청은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징계시효 기간 지휘관이나 인사·수사·단속·감사부서장 등 주요 보직으로 보임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징계시효는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이다. /연미란 기자

'핫라인' 발언, 김만복 前원장 피소

국정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후 국정원이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돼있다.

국정원은 형사고발과 함께 이달 5일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 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문제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원장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미란 기자

‘강남 쏘나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업고 부활

국내 수입차 판도 명암

렉서스 9월 판매량 전월보다 238.1% ↑

폭스바겐은 7.8% ↓ 10월 여파 드러날 듯

2000년대 초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1위를 지켰던 ‘강남 쏘나타’ 렉서스가 9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로써 렉서스·토요타 모델을 판매하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규모 리콜·집단소송을 앞두고 있어 국내 수입차 판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렉서스 ES300h.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렉서스 하이브리드모델 ES300h는 9월 529대 팔리며 렉서스 브랜드의 올해 가장 많은 월 판매량 781대를 견인했다. 이는 전월보다 238.1% 증가한 수치다. 렉서스는 올해 1~9월 5300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8월 ES300h는 53대가 팔렸는데 이는 9월 1일 부분변경 모델인 ES300h 출시를 앞두고 재고를 모두 판매한 데 따른 기록”이라고 말했다. 9월 ES300h 외에도 하이브리드 모델 NX300h·NX200t가 93대, 가솔린 모델인 ES350이 60대 등 팔려 렉서스 실적을 이끌었다.

렉서스 브랜드의 호실적과 더불어 토요타 브랜드도 올해 1~9월 5583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576대를 판매했는데 캠리 230대, RAV4 164대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이 추세라면 한국토요타는 올해 1만5000대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에는 1만3304대를 판매했다.

반면 수입차 시장을 주름잡던 폴크스바겐의 9월 판매량은 전월보다 7.8% 감소해 2901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폴크스바겐 사태가 터진 날이 9월 18일임을 감안할 때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10월 폴크스바겐 판매량에서 그 여파가 드러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토요타 측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수입차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한국토요타의 위치는 견고하다. 렉서스 ES300h는 1~9월 3209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8위에 올랐다. 이는 국내 수입차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폴크스바겐 사태로 향후 토요타의 강력한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라며 “전기차도 기존의 전위부대 역할에서 주력 기종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차별화 된 스타일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 출시

현대차 “젊은 고객층 공략”

현대자동차는 튜닝패키지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을 7일 출시했다.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은 엑센트에 전용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적용해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한 모델이다.

4도어, 5도어 기본킷과 5도어 전용인 ‘튜익스 크래용 플러스’로 구성됐다.

기본킷은 ▲컬러 루프스킨 ▲프론트 범퍼 포인트 커버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리어 범퍼 포인트 커버(5도어 전용) ▲리어 스포일러(5도어 전용) ▲화이트 인테리어 패키지(5도어 전용) 등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튜익스 크래용 플러스

5도어 전용 튜익스 크래용 플러스는 기본킷에 디자인 데칼이 추가됐다.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 모델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차량 계약 시 주문하면 된다.

차량 출고 후 추가 구매와 장착은 향후 튜익스몰(http://www.tuixmall.com), 블루멤버스 웹사이트(http://blu.hyundai.com)를 통해 서비스된다.

현대차 측은 “개성있고 컬러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형차 고객 특성을 반영하고 스포티한 해치백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젊은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의 가격은 ▲4도어 기본킷 37만원 ▲5도어 기본킷 56만원 ▲5도어 크래용 플러스 83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수입차 9000대 제작결함 리콜

레인지로버·캐딜락·몬데오 등

레인지로버와 캐딜락, 몬데오 등 수입차 9000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퓨전·MKZ 1523대에서는 내부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몬데오·퓨전·MKZ 4908대에서는 파워스티어링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 결합으로 핸들조작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승용차 2773대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문이 열린 상태인데도 닫힌 상태로 잘못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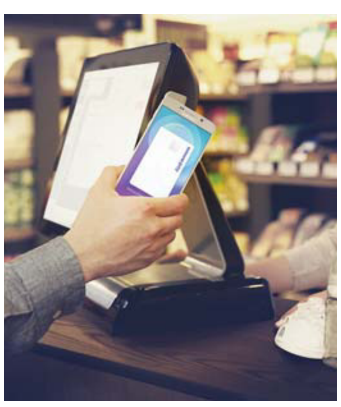
디스커버리4 승용차 76대에서는 선루프 유리를 감싸는 고무실링 접착제 불량이 적발됐다.

지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캐딜락 ATS 승용차 499대에서는 후면유리 성에제거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문의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지엠코리아(080-3000-5000)로 전화하면 된다. 리콜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美 최대 이통사 버라이즌도 ‘삼성페이’ 지원 결정

SW 업그레이드시 이용 가능


갤럭시노트5로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한다.

버라이즌은 7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서 “버라이즌용 갤럭시 S6·S6엣지·노트5·S6엣지플러스 단말기 이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페이는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미국 5대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버라이즌은 AT&T 등 다른 현지 이동통신사들이 삼성페이를 지원하기로 한 뒤에도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오래 끌며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소프트카드’와 서비스가 겹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삼성페이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고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을 활용한 범용성이 현지 주요 언론의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자사 고객들의 지원 요청이 빗발치자 결국 삼성페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한진 기자 hjc@


제 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에서 효성이 개발한 탄소섬유인 ‘탄섬’을 제공해 만들어진 ‘나의 행성, 나의 우주’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의 탄소섬유 활용 예술작품으로 대 변신

효성은 6~8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에서 자사 탄소섬유를 활용해 제작한 예술작품을 전시했다.

전시 작품은 김성희 과학예술 작가의 초대전 ‘나의 행성, 나의 우주’를 통해 공개됐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대표적인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행성에 대한 관심과 우주에 대한 상상을 예술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삼성, 신한은행에 모바일 보안 플랫폼 공급

'녹스' 은행권 첫 도입
개인정보 유출 원천 차단



삼성전자의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국내 은행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신한은행에 '갤럭시 노트 프로 12.2' 제품을 전자 문서 서비스용으로 공급했으며, 이번에 보안 강화를 위해 '녹스 워크스페이스(KNOX Workspace)'의 별도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의 '녹스'는 하드웨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 단말기의 모든 계층에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컨테이너라는 별도의 암호화된 공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으로 차단하는 온 디바이스 모바일 (On Device Mobile) 보안 솔루션이다.

신한은행의 전자 문서 서비스(EFS)는 태블릿을 활용해 현장에서도 예적금 신규신청, 대출 상담신청 등 금융 상품 가입과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 고객을 보다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은행권에 현장 영업을 강화하고 전자 문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용 태블릿과 모바일 보안 솔루션 '녹스'의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녹스'는 미국 국방성, 글로벌 공통 평가 기준(Common Criteria) 등 전 세계 주요 보안 인증을 취득해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초기에는 군이나 정부기관에서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등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신한은행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녹스의 강력한 보안성과 사용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삼성전자는 기업의 특성과 요청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녹스 커스터마이제이션(KNOX Customization) 등 다양한 B2B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기업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전국 확산나서

창조경제지원센터 신설
2017년까지 1000개 보급

삼성전자가 창조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스피드 경영을 전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000개 기업(경북 400개)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전자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200억원의 자금과 삼성전자 전문 멘토의 노하우를 결합해 경북 중소·중견기업 100여 곳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스마트공장 확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장급 조직의 창조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글로벌기술센터 김종호 사장을 창조경제지원센터장으로 선임했다. 창조경제지원센터는 스마트공장지원 태스크포스(T/F), 창조경제사무국, 상생협력아카데미 등을 합쳐 총 2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중 스마트공장지원 태스크포스에는 삼성전자의 현장혁신, 공장운영시스템, 제조기술 분야 전문가 등 150여명이 집중 선발·배치된다.

이들은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업체 발굴부터 시스템 구축 지원, 사후관리 방법론까지 전 분야를 지도하게 된다.

선발된 전문 멘토들은 삼성전자 수원, 구미, 광주 3개 사업장에 거점을 두고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경북 외에도 스마트공장 수요에 따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3명의 멘토를 파견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은 제품 개발부터, 양산, 물류, 판매까지 전 영역에 걸쳐 제조현장 혁신, 공장운영시스템(MES·ERP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조기술(공정시뮬레이션, 제조 자동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준과 규모, 분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된다.

지난해 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해 신설한 창조경제사무국도 창조경제지원센터 산하에 배치해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2016년 지원 대상업체는 올해 10월부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마트공장추진단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김종호 삼성전자 창조경제지원센터장은 "제조기술은 삼성의 핵심 경쟁력 중의 하나"라며 "삼성전자가 가진 노하우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전파해 국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회장 등 8명

삼성은 '2015년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김정숙 회장(69·세계여성단체 협의회) △여성창조상 안숙선 명창(66·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가족화목상 박향숙 공동대표(60·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청소년상 원종건(23·경희대 4), 윤정현(19·부산남고 3), 강민주(17·광주중앙고 1), 전유정(17·강원 생활과학고 1), 황윤하(15·천안여중 2) 학생 등이다.

수상자는 국내 각계 주요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토와 현장 실사 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삼성행복대상은 △여성의 권익과 사회공익에 기여한 여성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 △효행 실천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을 찾아 널리 알리고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2015년 삼성행복대상을 수상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향숙 대표, 김정숙 회장, 강민주 학생, 윤정현 학생, 황윤하 학생, 전유정 학생, 원종건 학생, 안숙선 명창. /삼성 제공

삼성은 다음달 5일 삼성생명 컨퍼런스 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각 수상자들에게 5000만원의 상금(청소년상 각 5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수상자 강연회도 열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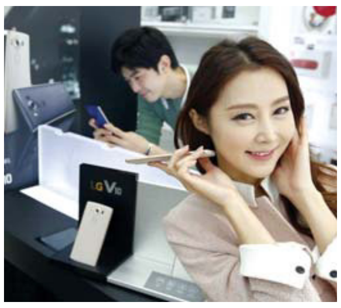
LG전자 'LG V10' 국내 판매 시작

출고가 79만9700원

LG전자가 8일 전략 스마트폰 'LG V10'을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 이 제품의 국내 출고가는 79만9700원이다.

LG V10은 세계최초로 '듀얼 셀피 카메라'와 '세컨드 스크린' 등을 적용해 사용자의 비주얼 경험(Visual Experience)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스테인리스 스틸 316L, 실리콘 등 신소재를 적용해 내구성도 높였다.

LG V10은 지난 1일 공개된 이후 외신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LG전자가 8일 전략 스마트폰 'LG V10'을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 이 제품의 국내 출고가는 79만9700원이다.

안드로이드 어소리티는 LG V10의 낙하테스트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략 15번의 낙하테스트를 해봤지만 마지막에 하늘로 V10을 던지기 전까진 겉면에 조금의 스크래치 자국만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내구성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수가 20만 건을 넘기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LG V10에 대해 매셔블은 "세계 최초 울트라폰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다" 평가했으며 기즈모도는 "매달 쏟아져 나오는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적인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LG전자는 10월 31일까지 LG V10을 개통한 고객에게 V10 전용 '배터리팩' 또는 정품 '퀵커버'를 무료로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美 프리스케일사와 ADAS 부품 협업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회사인 프리스케일사와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핵심부품을 공동 개발한다.

LG전자는 최근 프리스케일과 '차세대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은 주행 중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제어한다. 또 정확한 전방 인식으로 차량이 주행차선을 이탈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알려주고 도로 위 속도제한 표시를 자동으로 인식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번 협력으로 LG전자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인 자율주행차 부품의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가전과 모바일 분야에서 영상 및 센서, 무선통신 등 카메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4400만명이 '지식인' 이용… '국민두뇌'

네이버 서비스 개시 13주년
질문·답변 3억6000만건 달해 맞춤 지식공유 플랫폼 진화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iN'에 지난 13년간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총 3억6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는 7일 서비스 개시 13주년을 맞은 지식iN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각각 1억5000만건, 2억10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이용자 수는 총 4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만 5000만건의 질문과 7000만건의 답변이 등록됐다. 이는 10주년 당시와 비교할 때 모두 1.5배씩 성장한 수치다. 하루 평균 5만5000여건의 질문과 6만여건의 답변이 등록된 셈이다.

지식iN에는 현재 약 700개 분야에서 13만명 이상의 '고수'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매일 처음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이용자가 3000여명에 달한다. 답변이 채택된 이용자에게 제공한 해피빈 콩을 통한 기부 금액은 2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지식iN은 이용자들이 더욱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용자 맞춤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소통하며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지식iN PC와 모바일 메인 페이지 개편을 통해서는 ▲주제별 지식iN 우수 답변자 추천 ▲숨은 지식 한 눈에 살펴보기 등 사용자 요구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지식iN의 13주년을 축하하는 이용자들의 댓글 릴레이 이벤트는 총 8700여 개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13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준다.

박춘희 네이버 지식iN TF장은 "지난 13년 동안 이용자에게 지식iN은 단순히 지식 공유 창구를 넘어 친구, 동생과 같은 친근한 존재가 됐다"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누군가의 소중한 지식으로 탈바꿈되는 감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삼성 '기어 S2 밴드' 단독 출시

출시기념 요금할인 행사

SK텔레콤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워치 '기어 S2 밴드'를 8일 국내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어 S2 밴드는 통신모듈이 탑재된 삼성 '기어 S2' 스마트워치로 SK텔레콤 전용 단말이다.

제품은 원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타이젠 기반의 스마트워치로, 화면 터치와 측면의 2개 버튼도 지원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무선충전방식으로 충전패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간편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또 '기어S2 밴드' 구매 고객에게는 손목의 굵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지와 스몰 2개 사이즈의 시계줄이 모두 제공된다.

출고가는 39만9300원이고 전용 요금제 기준으로 13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출시하는 기어 S2 밴드의 가장 큰 강점은 외출이나 운동, 운전 시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음성통화와 문자 수발신, 데이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어 S2 밴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운동 기록 관리 어플리케이션인 '트랭글', 요일 및 시간대별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한 버스 실시간 도착 정보, 버스 정류장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인 'T맵 대중교통'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출시를 기념해 요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기어 S2 밴드 전용 요금제(월정액 1만원) 가입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회선을 '가족결합'하면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따라 24개월동안 매월 최대 5000원까지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문경 기자

이통3사, 갤럭시 S6·엣지 출고가 인하

70만~80만원대로



이동통신 3사가 8일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사진) 출고가를 일제히 인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S6 32기가바이트(GB)의 출고가를 기존 85만8000원에서 77만9900원으로 7만8100원(9.1%) 인하한다. 갤럭시S6 64GB의 출고가도 92만4000원에서 79만9700원으로 12만4300원(13.5%) 인하된다.

갤럭시S6 엣지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 갤럭시S6 엣지 64GB의 출고가는 기존 94만4900원에서 4만6200원(4.9%) 낮아진 89만8700원이다. 갤럭시S6 엣지 32GB 모델의 출고가(87만8900원)는 변함이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의 가격을 내린 것은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과 애플 아이폰6s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출시되는 V10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출고가를 70만원대로 낮췄고, 고성능 듀얼 카메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아이폰6s는 국내에 10월 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출고가를 인하한데다, SK텔레콤이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해 이동통신3사의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KT, 교동식품과 IoT 기반 스마트공장 협약

KT는 7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레토르트 식품 1위기업 교동식품과 사물인터넷(IoT) 사업자 연합체 '올레 기가 IoT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Io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구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충북 옥천 교동식품 공장에 첫 성공 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은 제조현장에 IoT 기술을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환경과 업무환경을 최적화한 공장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조업 혁신3.0'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의 중소·중견 공장 중에 약 1만 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LTE-M 등 IoT에 특화된 네트워크와 개방형 플랫폼 'IoT 메이커스'를 제공해 산업 기반의 IoT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 대상 중소기업은 IoT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별도의 설비 구매 없이 설비제어, 물류관제 및 재고관리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효과적인 경영운영이 가능해진다.

KT는 먼저 회사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냉동창고 등 공장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고, 공장 설비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기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물류 팔레트에 IoT센서를 부착해 제품의 생산부터 출고단계까지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대한항공

모바일로 항공권 구매시 최대 18% 할인 혜택 제공

대한항공은 10월 모바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8% 할인이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로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임의 3%를 할인해준다.

대상 노선은 한국 출발 뉴욕, 파리, 시드니 등 주요 장거리 노선을 포함 전 세계 36개 노선이다.

롯데카드나 우리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또 18일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댓글을 작성한 자사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추첨해 31일까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최경수 KRX 이사장 싱가포르서 글로벌 마케팅

"해외계좌로 韓 파생상품 투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의 밤'

거래인프라·제도 국제화
해외기관투자가 유치할 것

최경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7일 "한국을 아시아 파생상품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거래 인프라와 제도를 국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의 밤' 행사를 열고 150여명의 현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최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요구에 맞는 파생상품 라인업을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이 KRX 파생상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 이사장은 이어 "내년 1분기 부산에서 신규로 파생상품 시세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평한 시세 수신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주문회선 수와 용량 등을 늘림으로써 속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의 첨단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니버스 계좌도 도입된다. 옴니버스 계좌란 해외에서 개설한 계좌로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 이사장은 이밖에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 변화와 유망 신상품의 상장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해외 기관투자자가 밀집된 지역으로 한국거래소가 런던, 시드니, 홍콩과 함께 파생상품 해외 마케팅 4대 핵심지역으로 공략 중인 곳이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런던, 시드니 등 해외 주요 거점에서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해 해외 기관투자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단, '청년희망펀드' 동참 기업은행은 IBK알토스 여자배구단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25명이 기업은행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 등을 이용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정철 감독(앞줄 왼쪽 세 번째), 남지연 주장(앞줄 왼쪽 두 번째), 맥마혼 선수(뒷줄 맨 오른쪽) 등 IBK알토스 여자배구 선수단이 가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설계 제1변수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리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하고 노후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7일 발간한 「은퇴와투자」 제45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우선 점검해야 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임금·퇴직급여 변화 점검

사항은 '퇴직급여'의 변화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된다.

퇴직(일시)금 제도아래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그렇지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퇴직급 중간정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손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직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 가운데 삭감된 임금이 피크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피크연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기태기자 folium@

보험사, 가입자 대상 소송 남발…3년간 56.4% 증가

신학용 "민원제기 막기위한 소송 남발은 문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지난 2011년 4189건에서 지난해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지난해 2013건으로 56.4% 급등한 반면 같은 기간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902건에서 3060건으로 5.4%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급격한 소송증가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승소율은 보험사가 70~80%, 가입자는 30~40% 정도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소송제기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고객 피해 방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IMF 한국 성장률 2%대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3.1%에서 2.7% 포인트로 5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IMF는 지난 2월 내놓은 'G20 글로벌 전망과 정책 도전' 보고서에선 한국의 올 성장률을 3.7%로 예상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치는 한국은행(2.8%) 전망치보다 낮고 LG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5%) 등 국내 민간 경제연구원보다는 다소 높다.

이처럼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내수 부문이 지난 6월 기승을 부렸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를 극복하고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여전히 3%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차기태 기자

삼성전자株 3분기 깜짝실적에 8%대 급등

시장 컨센서스 6조5000억원 웃도는 7조3000억원
'100만원선 붕괴' 우려 딛고 120만원선 우뚝

삼성전자 주가가 깜짝 어닝서프라이즈에 폭등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들어 갤럭시S6 부진, 신(新)성장동력 부재론 등에 주당 150만원선을 반납하고 하락세를 이어왔다. 올해 3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예상됐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오랜만에 쾌재를 불렀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8.69%(10만원) 오른 125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같은 상승폭은 10.52% 급등한 지난 2009년 1월28일 이후 최대치다. 또 주당 12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월30일(121만5000원)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전날(169조5415억원)보다 14조7300억원 늘어난 184조2715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S6 출시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 3월18일 종가기준 150만30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갤럭시S6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7월 120만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 8월24일에는 장중 한때 103만3000원까지 떨어지며 100만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3분기 깜짝 실적발표에 당분간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장전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한 7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 분기 6조8979억원보다 5.83% 늘어났다. 매출액은 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8%, 전 분기보다 5.07% 증가했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인 50조3764억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5개 분기 만에 7조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증권사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전망한 수치인 7조930억원보다도 2000억원 이상 많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깜짝 실적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호조에 원화 약세가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70원으로 지난 2분기 평균치보다 7% 이상 높아졌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반도체 3조8000억원, 디스플레이 9000억원, IM(IT/모바일) 2조2000억원, CE(소비자가전)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 가격 하락에도 환율효과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 프리미엄급 제품판매가 늘면서 3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며 "환율효과 등으로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도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 분기 대비 7% 높은 수준"이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제품 가격 하락에도 환율 효과로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에 환율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4분기 실적엔 의견이 분분하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말에 있을 실적발표에서 깜짝 실적의 이유가 IM 부문의 경쟁력 확보 때문인지, 단순한 환율효과 때문인지를 확인한 뒤 4분기 실적전망치가 수립될 것"이라며 "이익의 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깜짝 실적은 단기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투자정보팀장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4분기 실적이 당초 우려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경쟁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단계라 호실적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일부 반도체 가격이나 패널 가격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업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환율 쪽에서 일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초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환율이 다시 강세로 가지 않는 한 4분기도 시장의 당초 예상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가을 제주여행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S큐레이터 서비스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 신라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가을 제주여행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가입안내 문자받기' 버튼을 클릭해 손쉽게 응모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미스터블루, 웹툰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

"해외로도 영역 넓힐 것"

만화전문 플랫폼 기업 미스터블루가 다음달 동부스팩2호와 합병, 코스닥에 상장한다.

조승진(사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3년 동안 만화전문 플랫폼 회사로서 한 우물만 파온 결과 국내 B2C와 B2B시장을 모두 선점했다"며 "만화는 '원소스멀티유즈(OSMU)'로서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콘텐츠 사업인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영역을 넓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스터블루는 지난 2002년 11월 설립, 현재 22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만화전문 플랫폼 기업이다. 지난 2002년 1월 만화 포털사이트 '미스터블루'를 오픈해 올해로 13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B2C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만화콘텐츠 서비스사업과 B2B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만화콘텐츠 제공 사업, 오프라인 만화출판 사업 등이다.

미스터블루는 업계 최초로 MS윈도우, 애플 iOS, 구글 크롬과 호환되는 크로스 브라우저 뷰어(Cross Browser Viewer)를 개발해 PC와 모바일 웹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자체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7억3500만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억4400만원, 29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만화콘텐츠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7.4%의 매출성장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연평균 99%, 88%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82억1000만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2%, 8% 성장했다.

조 대표는 "회원의 72% 이상은 경제력을 가진 30~40대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여도가 높은 3년 이상 장기 고객도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부터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할리퀸(로맨스) 만화를 독점 서비스 중인 것도 강점이다.

/김보배기자

증권 마감시황



7일 코스피지수가 두 달 여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대장주 삼성전자 힘…코스피 2000선 탈환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급등한 이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5.19포인트(0.76%) 상승한 2005.8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날보다 0.26% 오름세로 출발, 오후 장 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종가기준 코스피가 20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8월10일 2003.17을 기록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4억원, 883억원 쌍끌이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2121억원어치 내던졌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6.30%)와 종이목재(3.09%), 제조업(1.92%)등이 상승했고, 의약품(-4.31%)과 음식료품(-3.71%), 의료정밀(-2.77%) 등은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대부분이 올랐다.

대장주 삼성전자(8.69%)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8%이상 상승했고 현대차(1.56%)와 POSCO(1.18%), NAVER(0.36%), SK하이닉스(0.27%) 등도 상승세에 올라탔다. 반면 한국전력(-1.73%), 현대모비스(-0.22%)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23포인트(-1.34%) 내린 679.83으로 680선을 반납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4억원, 961억원 내던졌고 개인 홀로 133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하락업종이 우세했다. 출판매체복제가 4% 급락했고 방송서비스, 제약 등도 3%대 떨어졌다. 반도체(1.79%), 통신서비스(1.01%) 등은 상승 마감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CJ E&M이 6%대 하락률을 보였고 메디톡스(-4.52%), 로엔(-4.80%) 등도 낙폭이 컸다. 반면 컴투스(0.98%), 이오테크닉스(1.96%) 등은 올랐다.

/김보배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VIVA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SERIES
2015

비바 윈즈

10.10 SAT | 16:00

국립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

연주 서울시향 관파트 단원

티켓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비바 비올라

11.10 TUE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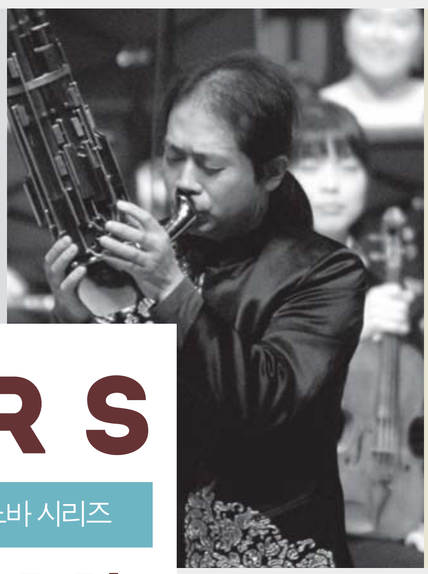
금호아트홀

연주 발티카 콰르텟

티켓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예매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ARS
아르스 노바 시리즈
NOVA
SERIES

아르스 노바 시리즈 III

10.30 FRI | 20:00

LG아트센터

관현악 콘서트 - 세기의 소리

지휘 일란 볼코프 Ilan Volkov, conductor
생황 우 웨이 Wu Wei, sheng

티켓 **R** 50,000 **S** 30,000 **A** 10,000





아르스 노바 시리즈 IV

11.05 THU | 19:30

세종체임버홀

체임버 콘서트 - HIGH & LOW

지휘 일란 볼코프 Ilan Volkov, conductor
생황 가민 Gamin, sheng

티켓 **R** 30,000 **S** 20,000 **A** 10,000

공동주최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예매**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인터파크 1544-1555 세종 체임버홀 인포샵 02-399-1114 LG아트센터 02-2005-0114

역세권 vs 항아리상권 '황금알' 어디?

초저금리에 수익형 부동산 호조
역세권, 전문식당·프랜차이즈
항아리 상권, 학원·병원 강세

역세권 vs 항아리 상권 상가 주요 분양물량

지역	위치	상가명	점포수
역세권 상가	서울 용산구	용산 써밋 스퀘어	118
	위례신도시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138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 한양수자인 아르디에 단지 내 상가	20
항아리 상권	충남 천안시	천안마치에비뉴 2차	95
	세종시	크리스마스(CRE'S MAS) 상가	148
	경기 화성시	우성 KTX 타워	116

자료 : 각 사



▶용산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연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 수익형 상품인 상가가 투자 대세로 자리잡으며 어떤 상권이 황금알 상권인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흥상권은 크게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으로 나뉜다.

◆ '역세권' 고수익·고비용, 전문식당·프랜차이즈 강세

역세권은 지하철이나 전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권으로 해당 역 주변 인구를 수요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수익·고비용 상품이다.

역세권에서는 상가가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 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91번지 일대 용산역사 전면에 '용산 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단지 내 상업시설인 '용산 써밋 스퀘어'를 분양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 역세권에 있는데다 단지 뒤의 아이파크몰에 올해 12월 HDC신라면세점이 오픈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인 이 상가는 일반에 118개 점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일반상업3블록 1-2, 1-3 부지에 짓는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의 상업시설 138실도 분양 중이다.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개통 예정(2017년 예정)인 8호선 우남역과 트램(노면경전철) 정거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이다.

수양종합건설·명주산업개발은 '인천 논현 한양수자인 아르디에'의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달 1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상가는 2개동 총 20실이다. 늘솔길공원·양떼목장과 가깝고 인천논현역과도 인접한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항아리상권' 안정적인 수익, 학원·병원 강세

항아리 상권은 특정 지역에 상권이 한정돼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뜻한다.

유동인구는 적지만 한정된 지역에서 안정적 수요를 갖춰 일정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소비층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단지 등의 안정적인 고정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학원이나 병·의원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알토란은 천안시 서북구 백성동 1051번지 일원에 메머드급 스트리트형 상가 '천안 마치 에비뉴 2차'를 공급 중이다. 반경 2km 내 주거 수요 15만명과 산업단지 종사자 5만여 명 등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저층 설계로 구성됐으며 공급 점포 수는 총 95실이다.

주식회사 크리스마스는 세종시 2-2생활권 CR-6블록에서 '크리스마스'상가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 세종시 2-2생활권은 1만여 이상의 브랜드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BRT(Bus Rapid Trangit·간선급행버스체계)를 통해 세종시의 전 지역을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 1층~지상 6층 총 148호실로 구성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성공여부는 집객력에 달려 있다 보니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 항아리 상권 상가와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역세권 상가 중 조건에 맞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역대 최고가 분양권 '53억'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전용 273.88㎡ 실거래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분당 타임브릿지 36억

역대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된 공동주택 분양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아파트로 실거래가 53억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로 36억원에 팔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전용면적 273.88㎡의 분양권은 지난 2010년 10월 13층의 실거래가가 53억2932만원에 신고돼 최고가 분양권으로 기록됐다.

2위는 2012년 10월에 거래된 강남구 논현동 논현라폴라리움 전용 263.93㎡(9층)으로 2012년 10월 52억8000만원에 신고됐다. 3위는 2009년 10월에 거래된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전용 237.63㎡(19층)로 50억4972억원에 계약됐다.

4위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 웨스트윙 전용 183.5㎡(19층)로 2011년 11월 50억원에 계약되는 등 역대 총 4개 단지의 분양권이 50억원 이상에 팔렸다.

비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는 성동구 성수동 1가 갤러리아 포레의 분양권이 가장 비싸게 판매되며 상위 10위권에 랭크됐다.

이 아파트 전용 241.93㎡(40층)의 분양권은 지난 2011년 6월 45억8440만원, 2010년 4월 44억2265만원(19층)에 판매됐다.

용산구 용산동5가 용산파크타워,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이스트빌리지, 강남구 삼성동 헤렌하우스2차, 마포구 서교동 세메나폴리스 등도 3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로 전용 211.97㎡(36층)가 2009년 7월 36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용산 토투벨리 오피스텔 전용 579.27㎡(14층)가 33억3751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165.13㎡(33층)가 2007년 12월 32억868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분양가 – 오피스텔 수익률 '반비례'

평균 분양가보다 싼 금천구 임대수익률은 6.23%로 최고
분양가 하위지역 수익률 높아

아파트 분양가 하위 5곳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구분	아파트 3.3㎡ 당 분양가(만원)	연평균 임대수익률
중랑구	1034	5.39
동대문구	1210	5.89
은평구	1229	5.2
금천구	1410	6.23
서대문구	1422	5.22

아파트 분양가 상위 5곳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구분	아파트 3.3㎡ 당 분양가(만원)	연평균 임대수익률
성동구	3939	5.69
용산구	2975	4.75
종로구	2311	5.07
강남구	2217	5.05
서초구	2154	5.1

서울시내 지역별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과 아파트 분양가 간의 반비례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다.

7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에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6.23%)와 강북구(6.23%)다.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인 5.23%보다 최대 1% 가량 높고 1%대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4~5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의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는 3.3㎡ 각각 1410만원, 1447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아파트 분양가 1894만원보다 400만원 이상 저렴했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의 풍부한 기업수요를 보유했지만 지난 10년간 공급 오피스텔 물량이 적어 공급 가뭄에 시달렸었다.

하지만 이달 5일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2만5000㎡ 공군부대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천구는) 서울 내에서 분양가 경쟁력이 있고 지역 호재가 풍부해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중랑구(5.39%), 동대문구(5.89%), 서대문구(5.22%) 등 아파트 분양가 하위 5개 지역 중 4곳의 오피스텔 평균 연간임대수익률이 모두 평균치를 넘었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다른 지역도 오피스텔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다. 용산구(4.75%), 종로구(5.07%), 강남구(5.05%), 서초구(5.1%) 등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임대수익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월세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보다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고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따져보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대한건설協, 2014년 종합건설사 경영분석

성장성 하락… 공사비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성장성이 2013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미미하나마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건설협회가 7일 발표한 지난해 종합건설사 경영분석에 따르면 성장성 지표는 2013년보다 하락했으나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는 호전됐다.

성장성 지표의 경우 총자산증가율(3.1%→3.3%)은 전년보다 상승했고 매출액증가율(2.9%→2.4%)과 건설매출액증가율(9.0%→4.2%)은 모두 전년보다 둔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업체의 자구적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간접자본 등 공사물량 확대, 공사비 제도 및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G, 백복인號 출범 "3대 新경영 펼칠 것"

윤리·소통·자율 경영 제시
조직개편, 부문제도 폐지
공채 출신 첫 CEO

KT&G는 7일 대전시 소재 KT&G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백복인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백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새로운 KT&G'를 만들기 위해 신(新) 경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명·윤리(Clean)', '소통·공감(Cooperative)', '자율·성과(Creative)'란 3대 경영 안건(어젠다)을 제시했다.

백 사장은 "우선 투명·윤리경영이 회사의 생존과 지속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남아있는 부조리와 적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백복인 KT&G 신임사장이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 본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G 제공

백 사장은 또 '소통·공감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문화를 재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상상실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존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율·성과 경영'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사 및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 단위사업부별 독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평가·보상과 연계시키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새로운 KT&G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바른 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국내시장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KT&G는 8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마케팅·영업 등의 분야와 생산과 연구·개발(R&D) 분야로 나뉘었던 부문 제도를 폐지하고 단위사업별 본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과경영을 위한 개편에 돌입했다.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채 출신으로 첫 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1993년 입사 후 전략, 마케팅 분야 등 요직을 거쳤다. 2011년 마케팅본부장 재임 당시 하락 추세였던 KT&G 내수시장 점유율을 58%에서 62%로 끌어올리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실명제도를 도입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 15개 계열사 '무스펙' 공개 채용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이달 8일부터 올해 하반기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회사는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케미칼 등 15개 계열사로 공채와 인턴을 포함해 총 12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서는 스펙을 무시하고 오직 직무수행만을 평가에 인재를 선발한다.

입사 지원서 서류 접수부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에세이만 기재하면 된다.

면접 전형은 회사별,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미션 수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19일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minus@



홈플러스-롯데주류, 미혼모 돕는 '사랑나눔 캠페인'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롯데주류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전국 140개 매장에서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클라우드 기획팩을 구매할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인 e파란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기부된 돈은 지자체의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혼모의 육아를 돕는데 사용된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월드몰·피트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롯데월드몰과 롯데몰(김포공항·수원), 롯데피트인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유명 SPA(제조유통일괄브랜드) 등이 참여하는 대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SPA 브랜드인 갭, 망고, 자라, 유니클로의 상품은 최고 30% 할인 판매한다. 또 롯데몰 김포공항점에 입점한 무인양품은 최대 70% 할인한다. 세라넥스트도어, 솔트앤초콜릿등도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롯데피트인 동대문에서는 인기 브랜드 SFOP를 최대 70% 할인하고 코데즈컴바인언더웨어, 엘르이너에서는전 상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뷰티매장인 클리오와 스킨푸드 기존가격에서 50% 할인할 계획이다.

한국집 등 F&B(식음료) 매장에서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현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미얀마에 13·14호점 열어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은 미얀마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양곤에 13호점과 14호점을 동시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양곤의 번화가인 사야산 로드에 1호점을 오픈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년 동안 매장을 14개로 늘렸다. 새롭게 문을 연 13호점과 14호점은 양곤의 신규 개발 지역인 준도와 예조 로드에 각각 로드숍 형태로 입점했다.



매장은 자연주의 콘셉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화로 꾸며진 벽장 등 국내와 동일한 인테리어 매뉴얼을 적용했다. 또한 제품과 함께 매장 곳곳에 자연 그대로를 담은 액자를 내걸어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

롯데하이마트, 초등학교 보육원에 도서 기증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는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아동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이날 이동우 대표와 윤희군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도서 4000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는 수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내 초등학교 7곳과 보육원 1곳 등 총 8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이랜드 슈펜, 중국 진출… 상해 1호점 오픈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중국에서 SPA(제조 유통 일괄형)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이랜드는 국내 최초 슈즈 SPA 브랜드 슈펜이 중국에 진출해 지난달 25일 상해 1호점을 오픈하고 오픈 첫 주말 방문객은 4만명, 매출액은 3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상해 1호점은 우자오창에 위치한 완다그룹의 완다광장 쇼핑몰에 991m2(300평) 규모로 입점했다. 슈펜의 중국 이름은 鞋范(씨에판)으로 '유행하는 신발'이란 뜻이다.

슈펜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과 마찬가지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2000여개 스타일의 신발을 매 시즌 선보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이랜드 슈펜은 11월에는 상해 2호점을, 12월에는 홍콩으로 진출해 중화권에서의 SPA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인스턴트 커피' 첫 러시아 수출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은 최근 러시아의 대표적인 커피 기업 2곳과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FD(동결건조 인스턴트) 커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작년 폴란드에 이어 올해 러시아로의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유럽 커피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수출하게 되는 물량은 1050톤, 금액으로는 약 2000만 달러에 달한다.

메마른 가을 피부 '보습코팅' 하세요

가을볕이 완연한 계절이 다가왔다. 아무리 좋은 볕이라지만 가을 나들이를 떠나는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고 건조한 바람에 마르기 쉽다. 특히나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는 아무리 피부가 튼튼한 사람이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가을철 피부 관리에 소홀했다간 오랫동안 시달릴 수 있다. 까다로운 가을 날씨에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몽드 '무궁화 보습 장벽 크림'.



네이처리퍼블릭 쉐어버터 스팀크림



미샤 슈퍼 아쿠아 울트라 워터풀 크림



베리떼 모이스처 이펙트

차가운 바람·건조한 공기 탄력 잃기 쉬운 날씨 겨냥 업계, 수분크림 라인업 강화

천연성분·자연발효 요소 등 윤기 피부·주름개선 효과도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는 최근 피부가 민감해지는 가을에 튼튼한 보습장벽을 만들어주는 '무궁화 보습 장벽 크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기존의 덧바르는 크림과 달리 무궁화의 강력한 천연 보습인자와 더 강화된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 있다. 피부 보습을 견고하게 하고, 피부 본연의 보습력을 극대화 시켜 준다. 특히 우리 피부 장벽의 성분과 구조를 유사하게 재현한 Ceramide PC-104 포뮬라가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빈틈없는 보습막을 형성해준다.

베리떼도 가을에 부족한 영양과 보습을 채워주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라인 '모이스처 이펙트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프랑스산 블랙 트러플과 미라클 히알루론산™ 외에 총 30종 이상의 천연 보습인자(NMF)를 함유한 베리언트 모이스처라이징 워터™로 만들어진 트리플 다이아몬드 워터™가 있어 피부에 수분을 가득 선사한다.


LG생활건강 숨37

LG생활건강의 '후 비첩 자윤(自潤) 크림'은 피부 스스로 힘을 갖게 해주는 로얄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다. 궁중 3대 비방인 공진비단, 경옥비단, 청심비단을 함유해 다양한 피부 고민을 다스려준다. 이 성분들은 피부 탄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맑고 깨끗한 안색을 가꾸어주며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오휘 에이지 리커버리 더 스타즈 크림'은 아기에게 많은 콜라겐을 그대로 구현한 베이비콜라겐™을 담아 어리고 탱탱한 피부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베이비 콜라겐™과 주니퍼러스™ 기능성 특허 성분이 함유돼 베이비 콜라겐을 촘촘히 채워주고 피부 속부터 층층이 쌓아 올림으로써 깊고 선명한 주름골까지 케어해준다.

'숨37 시크릿 에센스'는 워터 타입의 에센스로, 피부에 촘촘하고 진하게 스며들어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욱 부드럽고 깊숙이 작용한다. 이 제품은 LG생활건강 자연발효연구소에서 오랜 연구 끝에 자연 발효를 위한 4가지 요소인 물, 흙, 온도, 공기에 청정 자연을 따라 흐르는 빛과 소리의 '리듬'을 더해서 기존의 정통 발효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펌오리진 프로세스'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숨37의 자연발효 핵심 성분인 '싸이토시스'의 활성화를 돕는 진귀한 발효 성분 '페룰산'을 더해 영양성분이 더 풍부해지고 피부에 탁월한 보습효과를 선사한다.

브랜드샵에도 다양한 보습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더페이스샵이 최근 선보인 '망고 씨드 볼륨 버터'는 천연 망고씨앗 버터 성분을 함유해 촉촉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완성해준다. 100% 식물성 망고씨앗 버터가 메마른 피부 깊숙이 풍부한 보습감을 부여한다. 매끈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가꾸어줘 실크처럼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하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쉐어버터 스팀크림 모이스트'는 시어버터 성분을 100° C의 고온 스팀으로 크림을 잘 녹여 낸 48시간 고보습 크림이다. 거칠어진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 유·수분 밸런스는 물론 부드러운 텍스처와 빠른 흡수력으로 푸석해진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미샤가 최근 선보인 '슈퍼 아쿠아 울트라 워터풀 크림'은 사막에서 자생하는 부활초와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레드 맹그로브 등에서 배양한 캘러스 성분으로 만들어 피부의 수분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준다. 또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바오밥나무씨 추출물과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워터를 사용했다. 부드러운 쉬폰 질감으로 피부에 바르는 순간 끈적임없이 흡수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촉촉한 피부에 강렬한 입술… 고혹적인 秋女로

에센스팩트로 수분·커버 유지 짙은 레드 립 컬러로 포인트

찬바람 부는 가을에는 브라운이나 골드, 레드처럼 톤 다운된 컬러들이 시선을 끌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잡티 없이 환한 피부에 블링블링한 골드와 브라운 계열의 섀도로 눈에 음영을 주면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여기에 강렬하고 짙은 레드 계열의 립 컬러로 포인트를 더해 고혹적인 가을 여신으로 변신해 보자.

컬러 메이크업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결 없는 탄력적인 피부가 우선 받쳐줘야 한다. 가을철 건조함을 많이 느낀다면 보습과 메이크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에센스 팩트 제품을 사용하면 수분감과 커버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애경 루나의 '워터 에센스 파운팩트 EX'는 보습력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슬립커버 에센스 기술'을 통해 파운데이션 안에 고농축 에센스를 70% 이상 함유시킨 제품이다.



메이크업 전 스킨, 로션 같은 기초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에센스 팩트 하나만 발라도 촉촉함과 커버력이 유지될 만큼 수분감이 뛰어나다.

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눈은 메이크업 하나로도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VDL의 '엑스퍼트 컬러 아이북'은 아시아 여성의 피부톤을 고려해 엄선한 12가지 컬러의 아이섀도를 하나의 팔레트로 구성했다.

특히 '티베탄 로즈'는 팬톤 지정 2015 올해의 컬러 '마르살라'를 가을·겨울 트렌드로 반영해 재해석한 쉐이드로 장미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차분한 여성미가 돋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

여성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립 메이크업. 올 가을은 선명하고 화려한 컬러가 유행이다.

에스쁘아는 가을을 맞아 강렬하고 선명한 컬러로 매혹적인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는 '꾸뛰르 글로시 라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선명도가 높은 색소를 사용해 올 가을 유행인 강렬하고 농밀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준다.

네이처리퍼블릭의 '크리미 립스틱 10호 헐리웃 레드'는 크림처럼 부드럽게 녹아들어 컬러는 생생하게 입술은 촉촉하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발색 립스틱이다.

식물성 오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가을 건조하기 쉬운 입술의 각질과 주름을 케어하고 윤기를 부여해 최적의 입술 상태를 만들어 준다.



루나 워터 에센스 파운팩트 EX.

미샤 '시그너처 듀이(DEWY) 루즈'는 촉촉한 광택과 선명한 발색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진한 레드와인 느낌의 버건디 컬러 '루비링', 달콤한 사과가 연상되는 새빨간 '허니애플' 등 총 15가지 개성 있는 색상을 선보였다. /정은미 기자

“카톡사연이 전광판에…”



서울시청 신청사 서쪽 외벽 시민게시판.

서울시 신청사 서쪽 외벽 게시판 업그레이드

LED 전광판으로 교체 문자·사진·영상 표출 카카오톡으로 참여 가능

서울시청 신청사 서쪽 외벽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이 업그레이드됐다.

삼성전자의 기부를 받아 새롭게 설치된 LED 전광판은 풀컬러 고화질 전광판으로 문자, 사진, 영상을 모두 표출할 수 있다.

스크린 크기는 가로 12.8m, 세로 7.2m며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말풍선 모양을 채택했다.

기존에는 어린아이가 전광판을 들고 있는 모양이었으며 기능도 문자만 표출할 수 있었고 화질 사양은 낮았다.

시는 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6시간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도 기존에는 문자메시지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친구맺기’를 한 후 노란색 아이콘을 선택해 ‘실시간 참여’, ‘예약참여’, ‘이벤트 참여’ 등 3개 카테고리 중 하나를 누르고 법적 책임 준수 안내에 동의한 후 메시지를 올리면 서울시가 필터링 후 표출한다.

시는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책임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란·선정적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메시지는 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직접 홈쇼핑 체험보세요”

체험공간 ‘스튜디오숍’ 오픈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7일 서울 잠실역 롯데월드몰 지하광장에 홈쇼핑 제품과 방송,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숍’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숍은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간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옴니채널(Omni Channel) 서비스의 일환으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 본 후 ‘바로TV’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바로TV톡’을 통해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쇼호스트에게 문의할 수 있고 롯데홈쇼핑의 방송,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매장을 통해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스튜디오숍은 롯데홈쇼핑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광장에 자리를 잡았다. 롯데홈쇼핑 단독 브랜드와 단독 입점 브랜드를 포함한 총 70여 종의 상품이 전시되며 피팅룸도 갖춰져 있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이대목동병원, 바자회·사진전 등 소통 한마당

개원 22주년 맞아 행사다채 장기근속·모범직원 포상도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개원 22주년을 맞아 바자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직원간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6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양명수 이화여대 교목실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조영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이 이화가족 행복사랑나눔 바자회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음식을 담아주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제공

양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대목동병원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유경하 병원장의 기념사와 김승철 의료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때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준 양천구청과 보건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에게 포상했다.

또 원내에서 철저하게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감염내과 최희정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응급실과 62병동, 감염관리실에는 단체상을, 김충종 감염내과 교수 등 9명에게 개인상을 수여했다.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는 ‘이화해외의료봉사 사진전’이 개최됐으며, 병원 3층 옥상정원에서 열린 ‘이화가족 행복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김 이화의료원장과 유 병원장이 직접 물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유선준 기자

中, 韓 브랜드 최고는 ‘롯데면세점’

올해의 해외 브랜드 대상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은 지난 6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글내드볼룸에서 진행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수상후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국 대표(왼쪽)와 김보준 롯데면세점 마테팅 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중국 언론사인 ‘인민일보’와 한국 소비자포럼이 공동 진행한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조사결과 1위에 올랐다.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는 중국 수출 현황과 1년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190여 개 후보 브랜드를 선정한 후 중국 소비자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C레모나, G마켓, 글라스락 등도 선정돼 수상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샘표 ‘시골집 토장’ 글로벌 디자인 석권

레드닷·펜트 어워드 수상 국내 장류업계 첫 쾌거

샘표(대표 박진선)는 자사의 ‘시골집 토장’(사진)이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와 ‘펜트 어워즈(Pentawards)’에서 각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 본상과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로, 국제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펜트 어워즈는 패키지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유일한 국제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공모전이다.



이번 샘표 ‘시골집 토장’의 수상은 장류 업계 최초의 글로벌 디자인 수상이다.

달콤한 초코에 티라미수 풍미 한모금

동서식품 ‘미떼 핫초코 티라미수’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미떼 핫초코 제품에 부드럽고 달콤한 티라미수의 풍미를 더한 ‘미떼 핫초코 티라미수’(사진)을 7일 출시했다.

미떼 핫초코 티라미수는 디저트 케이크인 티라미수의 풍부하고 감미로운 맛을 더한 프리미엄 핫초코 제품이다.



핫초코와 티라미수의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30g×10개에 5400원이다.

star bag

첫 솔로곡 차트 석권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7일 자정 발표한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I(아이)'로 온라인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태연이 데뷔 이후 직접 작사에도 처음 참여한 곡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공헌대상 홍보대사

그룹 **클릭비**가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홍보대사로 6일 위촉됐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클릭비는 10월 중 13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 예정이다.



데뷔 10주년 기념 싱글

여성 보컬 그룹 **가비엔제이**가 싱글 '뗑큐'를 7일 정오 발매했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곡이다. 현 멤버인 노시현·건지·제니와 원년 멤버 장희영·미스티·정혜민 등 전원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빈·성준과 한솥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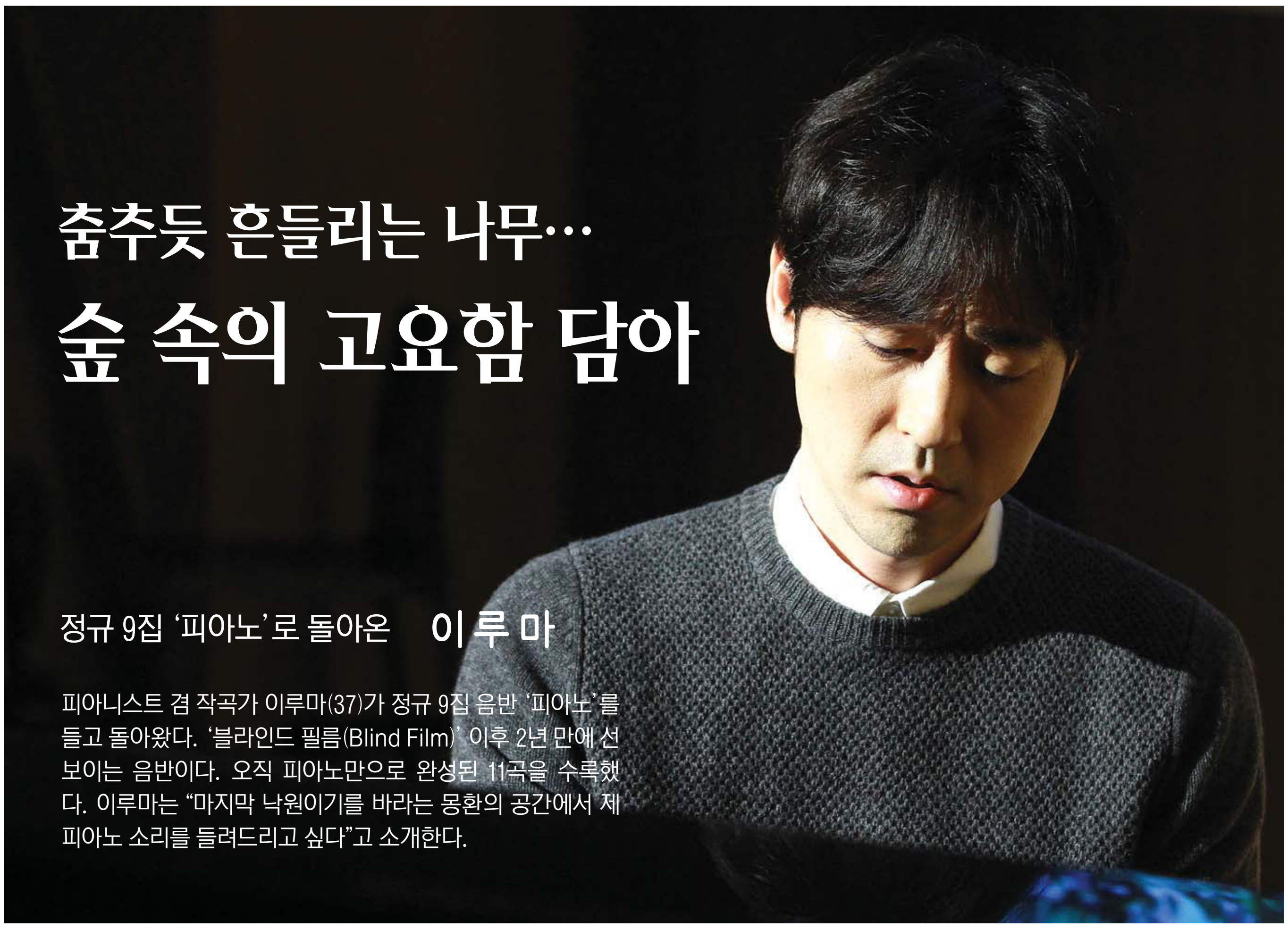


배우 **김남길**이 새 둥지로 현빈·성준 등이 소속된 오앤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다. 오앤엔터테인먼트는 7일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김남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극적인 하룻밤' 11월 개봉



배우 **윤계상, 한예리** 주연의 영화 '극적인 하룻밤'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했다. 연애하다 차이고 썸 타다 상대를 놓친 두 남녀가 '원나잇 쿠폰'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춤추듯 흔들리는 나무… 숲 속의 고요함 담아

정규 9집 '피아노'로 돌아온 이루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7)가 정규 9집 음반 '피아노'를 들고 돌아왔다. '블라인드 필름(Blind Film)'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음반이다. 오직 피아노만으로 완성된 11곡을 수록했다. 이루마는 "마지막 낙원이기를 바라는 몽환의 공간에서 제 피아노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소개한다.

7일 오후 서울 이태원 아이리버 스트라디움에서 열린 쇼케이스 행사에서 이루마를 만났다. 이날 이루마는 새 음반 타이틀곡인 '댄스(Dance)'의 뮤직비디오와 연주, 그리고 수록곡 '하트(Heart)' '여닝(Yearning)'의 연주를 직접 선보였다. 음반 작업 과정에서 영감을 주고 받은 안웅철 사진작가도 참석해 작업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이번 음반은 이루마가 최근 느껴온 불안함에서 출발했다. 예술가로서 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감정이었다. 그런 이루마에게 영감을 준 것은 안웅철 사진작가의 작품이었다. 이루마와는 정규 4집 음반 재킷 작업을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친분을 이어온 '형 동생 같은' 사이이다. 안웅철 작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방한계와 북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 곶자왈의 숲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이루마는 그곳의 풍경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안웅철 작가와 함께 숲에서 시간을 보내며 완성한 음반이 바로 '피아노'다.

> 예술가 불안 속 만든 새 음반
> 안웅철 사진작가 작품서 영감
> 제주 곶자왈 숲서 보내며 완성
>
> '이루마=피아노' 틀 깨고 싶어
> 앞으로 다른 음악 시도할 계획

"'피아노'라는 제목을 붙인 가장 큰 이유는 저를 표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숲의 고요함을 담은 것이기도 하고요. 피아노라는 악기도 숲처럼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번 음반에 수록된 노래들은 실제 피아노가 아닌 건반으로 피아노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피아노처럼, 건반을 통해 진짜 같은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수록곡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음악으로는 타이틀곡인 '댄스'를 꼽았다. 제주 곶자왈의 숲속에서 춤추듯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쓴 곡이다. 이루마는 "원래 작곡을 전공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아노 연주자라고 부르면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곡을 쓰려고 했다. 그렇게 '댄스'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연주하는 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도 했다. 이번 음반에 대해서는 "느낌이 비슷한 곡이 많아서 앨범 전체를 하나의 곡으로 느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내년 2월에는 영국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간다. 이루마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면서 '언젠가 다시 영국에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린 '피아노'를 타이틀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시도와 변신을 선보일 계획이다.

"가끔 제 이름을 검색해보면 제가 연주하지 않은 곡도 제 이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웃음). 그만큼 이루마라는 이름이 피아노와 같이 언급되는 것 같아 좋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틀을 깨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당분간은 다른 음악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했던 가요 작업처럼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임시완·고아성 '오빠생각' 촬영 종료

한국전쟁 실화 바탕 감동 드라마… 내년 설 개봉





임시완, 고아성 주연의 영화 '오빠생각'(감독 이한)이 지난달 26일 크랭크업했다.

'오빠생각'은 한국전쟁 당시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 시작된 작은 노래의 위대한 기적을 그린 영화다.

영화는 지난 5월 18일 첫 촬영을 시작한 경주·충주·삼척 등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 전국 곳곳을 오가며 촬영을 이어갔다. 고된 일정이었음에도 스태프와 배우들은 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마지막 촬영은 전쟁으로 마음을 닫은 한상렬(임시완) 소위, 그리고 한 소위와 아이들을 위협하는 갈고리(이희준)의 장면으로 진행됐다. 모든 촬영을 마친 뒤 감독과 배우, 전 스태프들은 기쁨과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며 64회차 촬영을 마친 특별한 감회를 나눴다.

임시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6개월 동안 '오빠생각'과 함께 해왔는데 어느 덧 마지막 날이 됐다. 아직 실감이 되지 않는다. 따뜻한 영화인 만큼 우리 영화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많이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단 아이들을 돌보는 박주미 역의 고아성은 "오랜 시간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관객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빠생각'은 후반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설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FOX
FOX life

대중음악과 만난 '아리랑' 광화문서 판놀음 벌인다

10~11일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15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 10~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아리랑 가락과 대중음악이 만나는 '춤춰라 아리랑'과 아리랑을 주제로 한 '판놀이 길놀이'로 꾸며진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판놀이길놀이'는 1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세종대로 네거리 양방향 10차선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1.3km구간에서 진행된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네거리 약 1만여평의 공간을 '판'으로 삼아 4000여 명이 동시에 구간을 돌며 소리, 춤, 몸짓, 조형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저마다의 기량을 뽐낸다.

길쌈놀이, 북청사자놀이, 안동차전놀이보존회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함께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아리랑페스티벌 공식홈페이지(www.seoularirangfestival.com)를 참고하면 된다. /이예진 기자

자랑스런 우리 글, 소중함 되새긴다

제 569돌 한글날 기념 전국서 문화행사 다채

문화큰잔치·축하무대 전시회 등 볼거리 마련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와 국립한글박물관 등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과학성을 함께 되새긴다.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한글문화큰잔치'의 전야제가 열린다.

1부에서는 한글 홍보영상 상영, 한글 반포식 재연, 어린이 합창단 공연, 한글 주제 공연(타악·깃발무·한국무용) 등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KBS 쿨 FM '김성주의 가요광장'이 한글날 특집으로 진행한다. 그룹 '레드벨벳', '몬스터 엑스', 래퍼 키썸 등이 축하무대를 꾸민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한글' 조형물 뒤로 세종대왕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한글날에는 광화문 중앙광장·북측광장·세종로 공원에서 무용 '춤으로 그리는 한글',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등 16개의 공연이 선보인다.

한글 디자인전시와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도 마련된다.

이날 오후 6시에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다함께 즐기는 한글 음악회'가 열린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선 '한글이 걸어 온 길'이 전시된다. 기획특별전 '디지털 세상의 새 이름-코드명 D55C AE00'이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계속된다. 의사소통의 수단에서 디지털 언어로 진화한 한글의 면모를 시간 순으로 짚는 전시다.

7일 오후 옥상하늘정원에선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연주와 KBS 성우 김희선 씨의 시낭송을 들을 수 있는 '시낭송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무대를 마련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박물관 야외 한글모임마당에서는 디자이너가 한글을 소재로 만든 물품을 구입하고 중고책을 교환할 수 있는 '한글문화장터'가 열린다. 한글 붓글씨 쓰기, 한글 퀴즈, 마술공연,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 한글나눔마당에서는 11일까지 KBS가 1998년부터 제작한 한국어 포스터를 전시한다.

11일 열리는 '한글주간 특별 인문학교실'에서는 도현철 연세대 교수가 '훈민정음 시대의 역사', 박현모 세종대왕리더십연구소장이 '세종의 창조리더십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www.hange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국어문화원·각 지자체를 비롯해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54개국 138개소)에서도 한글날을 전후해 말하기 대회·한글 전시 등의 행사를 벌인다.

행정자치부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글날 중앙 경축식을 연다. 올해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은 고(故) 정재도 한글학회 사전편찬위원과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10명이 받는다.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

◆ MBC '경찰청사람들'

오후 11시 10분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이 공개된다. 모든 정황과 심증이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라진 계곡에 함께 들어갔던 용의자는 서울로 오자마자 차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을 제거했다. 골절기에는 무려 22점의 신체조직이 발견되고 그 DNA는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채무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용의자는 입을 닫는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 30분

안문숙-김범수 부부는 이별 여행을 위해 제주도로 떠난다. 김범수는 안문숙의 발을 씻겨 주고 안문숙은 김범수의 수염을 깎아주면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랜다.



◆ 채널A '구원의 밥상'

오후 11시

우리나라 단일장기질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인 '뇌졸중'의 모든 비밀이 공개된다. 뇌졸중을 극복하고 제 2의 인생을 맞은 새 박사 윤무부가 병상을 털어낸 비결을 밝힌다.



◆ KBS2 '비타민'

오후 8시 55분

모든 건강과 질병의 기본이 되는 혈액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피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혈액을 맑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일 (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OCN series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엄마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1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유자식상팔자 (재) 10: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35 마녀사냥 (재)	05:50 천기누설 스페셜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5:4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00 명단공개 06:3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5:20 나는 공무원이다 07:20 썸데이 08:30 오리지널스 10:20 신의 퀴즈 시즌2 11:20 무비스토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5:55 튼튼생활체조 16:00 오늘의 경제 16:10 100세 시대, 이제는 건강복지다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인간극장 스페셜 13:50 야생일기 (재)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내 딸, 금사월 (재) 13:30 MBC 나눔 특집 다큐 특별한 도전 신고합니다 14:30 똑?똑! 키즈스쿨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재) 14:00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16:00 SBS 애니갤러리 16:30 한글날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00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두번째 스무살 (재) 15:50 현장토크쇼 TAXI (재) 16:40 집밥 백선생 (재)	12:30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2 14:10 컨티넘 시즌2 15:00 CSI NY 시즌8 16:40 오리지널스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명견만리 23:00 KBS 뉴스라인 23:40 기록유산, 인류 문명의 기억 24:30 아시아 영화의 힘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비타민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경찰청 사람들 2015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40 나이트라인	18:30 유자식상팔자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4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21:45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8:00 코미디 빅리그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어쩌다 어른 (재) 23:00 슈퍼스타K7 24:40 처음이라서 (재)	18:20 두 얼굴의 여친 20:20 컨티넘 시즌2 21:10 모티브 22:00 빅뱅이론 시즌8 22:55 레이 도노반 시즌2 23:50 정조암살 미스터리 8일

슈틸리케호, 차·포 떼고 쿠웨이트 잡는다

<손흥민> <이청용>

러 월드컵 亞 2차 예선

쿠웨이트전 '승점 6점 가치' 무더위 이겨야 승부 가능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쿠웨이트와 원정경기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7일(한국시간) 쿠웨이트시티의 사바 알-살렘 스타디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가볍게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모래바람을 뚫고 최종예선 직행을 노린다.

한국 대표팀은 8일 오후 11시 55분 쿠웨이트시티에서 쿠웨이트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G조 4차전을 치른다. 2차 예선에서 쿠웨이트와 치르는 첫 번째 경기다.

아시아지역 2차예선은 5개팀씩 8개 조로 나눠 진행된다. 각 조 1위 8개팀은 최종예선에 직행하고 각 조 2위를 차지한 8개팀 중 성적순으로 상위 4개팀만이 최종예선에 합류한다.

한국과 쿠웨이트는 현재 3전 전승으로 승점이 같다. 골득실에서도 한국이 +13, 쿠웨이트가 +12로 박빙이다. 한국으로서는 쿠웨이트와의 경기가 최종예선으로 가는 분수령이다. 슈틸리케 감독도 "쿠웨이트전은 승점 3점이 아닌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말할 정도다.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남아있는 4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적어도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나 슈틸리케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차와 포가 빠졌다. 대표팀의 좌우 날개인 손흥민(토트넘)과 대표팀의 에이스였던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슈틸리케호에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박주호(도르트문트), 이재성(전북), 남태희(레퀴야), 황의조(성남)등을 대표팀의 좌우 날개로 활용할 수 있다. 원톱을 놓고 석현준(비토리아FC)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대결하는 국면이지만 지동원도 측면에서 뛸 수 있다.

원정 경기에 따른 장애물도 있다. 쿠웨이트는 낮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한다. 해가 떨어져도 30도를 넘을 정도다. 무더위를 이기고 얼마나 현지 적응력을 길렀는지 여부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쿠웨이트의 밀집수비 전략이예상된다. 이것을 뚫어낼 해결책도 필요하다. 수비를 두텁게 한 후 역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개인기에 의존한 전술보다는 측면을 활용해 밀집수비를 뒤흔들어야 한다.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쿠웨이트 현지 주민들의 일방적인 자국 응원도 견뎌야 한다. 이라크를 중심으로 급증한 콜레라 발병이 쿠웨이트에도 전파돼 2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에도 주의해야 한다.

여러모로 장애물이 많지만 쿠웨이트전은 최종예선 직행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경기다.

/하희철 기자 @metroseoul.co.kr

효자종목 통해 3위 간다

세계군인체육대회

태권도·양궁 등서 메달 사냥



5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실내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남자 유도에서 메달을 수확한 이정민, 한장수, 황동규(아랫줄 오른쪽부터)가 상무 선수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 3위를 목표로 내건 한국이 7일부터 전통적 효자종목을 통해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자 유도에서 첫 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이날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실내종합경기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다수의 메달을 노린다.

태권도 종목 첫날에는 남자 54kg급, 63kg급, 87kg이상급과 여자 46kg급, 53kg급, 73kg이상급 등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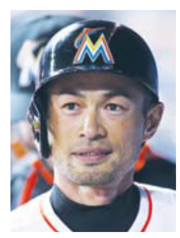
한국은 이 중 여자 73kg이상급을 제외한 5개 종목 정상을 노린다. 하사로 복무 중인 최희정(23), 이화정(22)과 일병 신분인 최영상(23), 조원용(23), 곽도훈(25) 등이 출전한다.

또 다른 효자종목인 양궁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리커브 남자부에만 출전해 이날 치러지는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조준하고 있다. 병장 김주완(21)과 신재훈(22)을 중심으로 해 일병 김성훈(25)과 구대한(22)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구대한은 지난해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 혼성부 금메달을 차지했고, 신재훈은 올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6위에 오른 만큼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다. 한국은 8강에서 카타르와 상대한다. /하희철 기자

스즈키 이치로 통산 3000안타 재도전 마이애미와 1년 재계약



스즈키 이치로(42·사진)가 마이애미 말린스 유니폼을 입고 통산 3000안타 재도전에 나선다.

마이애미 구단은 7일(한국시간) 외야수 이치로와 1년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몸값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치로는 올해와 같은 연봉인 200만 달러(약 23억원) 수준에서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이면 42번째 생일을 맞는 이치로는 이번 재계약으로 메이저리그 통산 3000안타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블루웨이브에서 뛰다가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치로는 올해까지 15시즌을 치르며 통산 3000안타에 65개가 부족한 2935개의 안타를 쳤다.

마이애미 이적 첫해인 올해에는 주로 백업 외야수로 뛰며 15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29(398타수 91안타)에 1홈런 21타점 45득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가장 낮은 타율이다. 그러나 이번 재계약으로 1년이란 시간을 벌어 통산 3000안타 기록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하희철 기자

프레지던츠컵 첫 포섬 경기 대진 발표



경기 1일차(8일) 포섬 매치 조편성 발표에서 미국팀(왼쪽) 제이 하스 단장과 인터내셔널팀 닉 프라이스 단장, 최경주 수석부장단을 비롯한 양측 부단장들이 출전 선수들을 결정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콧-마쓰야마·왓슨-홈스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 첫날 포섬 경기의 첫 대결은 애덤 스콧(호주)-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인터내셔널팀)조와 버바 왓슨-J.B. 홈스(미국팀)조의 대결로 결정됐다.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은 7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조편성에서 8일 열리는 5개의 포섬 경기 대진을 발표했다.

포섬 경기는 같은 팀의 두 선수가 번갈아 공을 쳐 스코어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선수들간 호흡이 중요하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인터내셔널팀이 약세인 경기 방식이기도 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미국팀의 제이 하스 단장은 대전 선발 우선권을 갖고도 첫 조 선수 발표권을 인터내셔널팀에 넘겼다. 인터내셔널팀의 닉 프라이스 단장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11승을 올린 스콧과 일본의 영건 마쓰야마를 같은 조에 내세웠다. 미국팀은 장타자인 왓슨과 홈스로 인터내셔널팀에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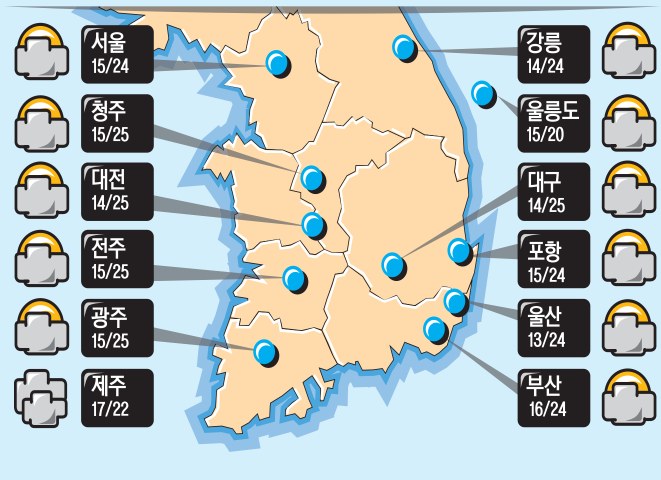
두 번째 조는 루이 우스트히즌-브랜든 그레이스(이상 남아공·인터내셔널팀)와 맷 쿠처-패트릭 리드(미국팀)조가 맞붙는다.

이어 아니르반 라히리(인도)-통차이 짜이디(태국)와 리키 파울러-지미 워커, 제이슨 데이(호주)-스티븐 보디치(호주)와 필 미컬슨-잭 존슨, 대니 리(뉴질랜드)-마크 레시먼(호주)과 조던 스피스-더스틴 존슨이 잇따라 대결한다. /하희철 기자

날씨

10/8 목 일출시각 06:33 일몰시각 18:0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생활 영어

I do a lot of outdoor activities

A: What do you do on weekends?

B: Nothing special. I go hiking. What about you?

A: Usually I stay home. On my day off, I just watch TV all day.

B: I do a lot of outdoor activities.

A: Yes, I heard so.

B: Let's go hiking some day.

A: Great. I'm in!

저는 야외활동을 많이 해요

A: 주말에 뭐 해요?

B: 특별한 건 없고요. 하이킹하러 가요. 당신은요?

A: 저는 대개 집에 있어요. 쉬는 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TV를 봐요.

B: **저는 야외활동을 많이 해요.**

A: 네, 그렇게 들었어요.

B: 언제 하이킹하러 갑시다.

A: 좋아요. 저도 낄게요!

문법Point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나 일반적인 사실 등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는 동사원형을 사용하며 3인칭 단수에는 –(e)s를 붙여 줍니다.

ex) I watch TV every day. 나는 매일 TV를 본다

ex) Jane eats breakfast every morning. 제인은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Words

day off 쉬는 날 / stay home 집에 있다

outdoor activity 야외활동

* I'm in : 저도 낄게요.

– 누군가의 초청이나 활동에 함께하겠다고 동의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2	9
	6			3		8		4
	2		1					
3				4				
6			8		7			2
				2				6
					5		8	
5		4		6			7	
8	1	9					4	

	8					5	6	
		7	8	6			2	3
2							7	
1			9				5	
			2		1			
	2				5			4
	4							6
6	3			7	4	2		
	1	8					4	

스도쿠 정답

1	4	8	7	5	6	3	2	9
7	6	5	2	3	9	8	1	4
9	2	3	1	8	4	5	6	7
3	9	2	6	4	1	7	5	8
6	5	1	8	9	7	4	3	2
4	8	7	5	2	3	1	9	6
2	7	6	4	1	5	9	8	3
5	3	4	9	6	8	2	7	1
8	1	9	3	7	2	6	4	5

3	8	1	4	2	7	5	6	9
4	5	7	8	6	9	1	2	3
2	9	6	1	5	3	4	7	8
1	7	4	9	3	6	8	5	2
8	6	5	2	4	1	9	3	7
9	2	3	7	8	5	6	1	4
5	4	2	3	1	8	7	9	6
6	3	9	5	7	4	2	8	1
7	1	8	6	9	2	3	4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건강회복과 이직문제로 고민입니다
술·담배 멀리하고 언어분야 공부하세요

햄볶이 여자 85년 7월 2일 음력 8시~8시반

Q 요즘 건강문제로 많이 고민되어 질문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언제쯤 괜찮아지려는 가요? 그리고 이번에 고민 많이 하다가 9월24일에 자궁 쪽으로 수술(시술)받을 예정인데 해도 괜찮은가요?

내년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제가 어느 쪽 분야로 공부나 진로를 잡아야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는지요? 공부를 해 공무원이나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네요.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흉화복과 건강상의 문제가 사주팔자에 기인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귀하는 큰 산이나 사막 같은 형상인데 배우자궁에 금전적인 갈망이 크며 항상 돈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산속의 다람쥐와 같아 크게 벌지는 못 합니다. 늘 무리수를 띠지 않으면 보수적인 성향이라 다행히 천지합덕(天地合德)하니 위인이 총명하고 재복이 있어 가정은 안태한 기상입니다.

무자일주(戊子日柱)로서 자수(子水)를 앉은 자리에 깔고 있으니 추위서 항상 화(火)의 따뜻한 기운을 희구하므로 자궁 골절 신경계통 등에 잔잔한 징후가 있습니다.

고서에 보면 팔방미인에 자도화(子桃花)로 미녀이며 색정이 강한데 밤을 좋아 하는 야행성이라고도 표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멀리하라고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자식이 귀하고 인연이 엷으니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삶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선 컴퓨터에 능숙하도록 하고 언어를 폭 넓혀 보십시오. 육해(六害)라 하여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분야가 적합하며 예기에도 소질이 있고 독창적인 창작은 어려우나 전통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답습하는 데는 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좁혀서 다시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애를 써서 승부수가 뛰어나야하는 상황을 전개시키면 힘들어 마음이 황폐해 질수 있으니 이 또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한다면 행동과 생각은 민첩하나 자립심이 약할 수 있으며 이직 운이 절지(絶地:단절됨)니 기회가 오기도 힘들지만 굳이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8일 (음 8월 2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묵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60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가득합니다. **72년생** 모든 일이 무난하게 풀리고 주변도움도 받습니다. **84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납니다.

소 **49년생** 자신의 생각을 믿는게 좋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실수를 품어주고 배려해 주세요. **73년생** 처음엔 어렵지만 노력하면 결과는 좋습니다. **85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토끼 **51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몸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과음은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용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뱀 **53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65년생**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켜 보세요. **77년생** 평소와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합니다. **89년생** 그룹에 행운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말 **54년생** 노력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양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보세요.

원숭이 **56년생** 오랫동안 숙원한 일이 이뤄집니다. **68년생**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어떻게 시작하는 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92년생** 여행도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윗사람의 말을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개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기차 빅뱅, 2017년이 기대된다



김필수의 차 이야기

전기차는 아직은 전위부대의 역할이다. 친환경차 3총사 중 자동차 자체의 무공해성은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으나 아직 단점이 많다는 뜻이다.

우선 가격적 한계와 충전 인프라도 역시 아직은 문제가 크고 전기차 소유자의 인센티브 정책도 약한 편이다. 그러나 역시 전기차는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환경차인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 가장 운신의 폭이 큰 만큼 향후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미래의 자동차라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전기차는 기존의 단점을 없애고자 노력했으나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30여 년간 내연기관차 위주에서 단 수년 이내에 패러다임이 다른 자동차로 변신한다는 것이 난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는 간단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과학적인 대상인 것은 물론 문화적, 전통적인 부분도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술적 진보는 물론이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측성도 내포돼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기차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환경적 오염원에 대한 한계가 지구 현안이 되고 있고 이 오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은 전기차의 시장 진입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조차도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부터 전기차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민간 보급이 이뤄진 2014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올 2015년까지 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빈약하다. 정책적 지원도 보조금에 매달리고 있고 시장 활성화 정책이 부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전기차 단체 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간 전국 어디서나 수시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을 설파했다. 3명 중 2명이 아파트에 사는 특성을 고려한 충전 시스템 보급, 그리고 전기차 소유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등 3대 요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예를 들면 도심지 버스 전용 중앙차로에 전기차 진입과 이를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이다.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시기적으로 판단하면 내후년인 2017년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빅뱅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만큼 전기차의 단점이 획기적으로 사라지는 한해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급속, 완속 충전기의 보급이 내후년에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내용기관차 중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를 거부하는 자동차 산업 체계도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엔진과 변속기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간 자동차 산업은 지난 130여년 역사 중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고 흐름이 그렇다면 얘기가 달리진다. 최근의 변화는 이런 요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도 뒤지지 않는 정책적 배려와 국민적 호응으로 새 시대를 앞서가는 자동차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 중심에 정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社說

한국은행은 2%대로 만족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한은이 금리를 내릴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다'는 관측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의 이런 입장표명은 올해 성장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듯하다. 실제로 이 총재는 같은 날 국감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가 말한 성장률 전망이란 한은의 예상치 2.8%를 가리키는 듯하다. 자칫 2%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을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한 셈이다.

한은은 2%대의 낮은 성장률에 만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최소한 3%대 성장은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와 달리 상당히 느긋해 보인다.

현행 연 1.5%의 기준금리를 고수하는 한 이주열 총재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성장률에 머무른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한은이 이 정도 성장률에 만족한다면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무책임해 보인다.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은이 금리인하 문제에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져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약해진다. 그렇다면 한은이 2%대 성장률에 만족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월호 이준석'과 '폴크스바겐' 빈터콘 회장의 닮은꼴



기자 수첩
이 정 필
<산업부>

얼마 전 영화 암살을 봤다.

독립투사에서 친일파로 변절한 염석진의 인간상이 기억에 남는다. 광복 이후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상체를 드러내는 모습이 압권이었다.

누가 죽든 나만 살고보자는 친일의 역사, 행적이 걸리면 '배 째라' 식의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다.

선장이란 이준석은 제 몸뚱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두겁을 쓰고 벌인 몰인간성의 극치다.

이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의 상처와 전 국민의 트라우마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는 이와 닮아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 터지자 마틴 빈터콘 폴크스바겐 회장은 "나는 몰랐다"며 사임으로 끝냈다. 바로 그달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나이트 행사에서 그룹의 비전을 호기롭게 발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이라지만, 정작 그가 제대로 책임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책임질 생각이라면 이번 사태를 끝까지 맡아 글로벌 소비자를 상대로 확실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사임은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리더로서 이런 번거로운 일련의 과정을 회피한 채, 한발 물러나 거실 소파에서 편안히 관망하는 방법을 택하고 말았다.

사퇴로 땡치고 끝이란 식의 태도는, 구린 일이 적발되면 "몰랐다, 기억 안 난다"가 주특기인 우리네 여의도 높은 분들이 연상돼 뒷맛이 씁쓸하다.

'작량감경 대상' 미성년 범죄자 재판 중 성인되면 법 적용은?

생활 법률

18세이던 A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의 부모는 소년형사사건상 미성년이 적용돼 A군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A군은 몇 달 뒤 19살이 된다. 소년법상 A씨는 소년과 성인 중 어디에 속해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년의 인격은 형성 중이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며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소년의 기준이 나온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A군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 선고 시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연미란기자 actor@

인사

◇국가보훈처 △승진 ▷감사담당관 이종경 ▷나라사랑정책과장 나치만(이상 부이사관) ▷감사담당관실 김상출 ▷기획재정담당관실 김경탁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남영 ▷보상정책과 황선우 ▷단체협력과 황승임 ▷국립묘지정책과 황후연 ▷생활안정과 채순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3과 유연신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대훈 ▷단체협력과장 이재익 ▷기념사업과장 남궁선 ▷국립묘지정책과장 안중엽 ▷생활안정과장 박용주 ▷제대군인지원과장 이제복 ▷국제보훈과장 전용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박행병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윤종오 ▷인천보훈지청장 이광태 ▷수원보훈지청장 남창수 ▷창원보훈지청장 노원근 ▷청주보훈지청장 김종술 ▷영천호국원장 김종민 ▷익산보훈지청장 이우실 ▷임실호국원장 신준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제문화과장 금기형

◇행정자치부 △서기관 승진 ▷조동두 ▷나채목 ▷황동준 ▷이창재 ▷김영석 ▷유호 ▷고규선 ▷김동현 ▷정혜원 ▷조병곤 ▷김영진 ▷송준호 ▷최승원 ▷이중동 ▷손연석 ▷정유근 ▷조성하 ▷이혜란 ▷박제원 ▷김명수

◇서울경제TV SEN ▷부국장대우 ▷제작국 박인한 ▷채널마케팅국 조성천

◇중앙대 ▷교무부처장 겸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송해덕 ▷연구부처장 황광우 ▷커리큘럼인증센터장 유정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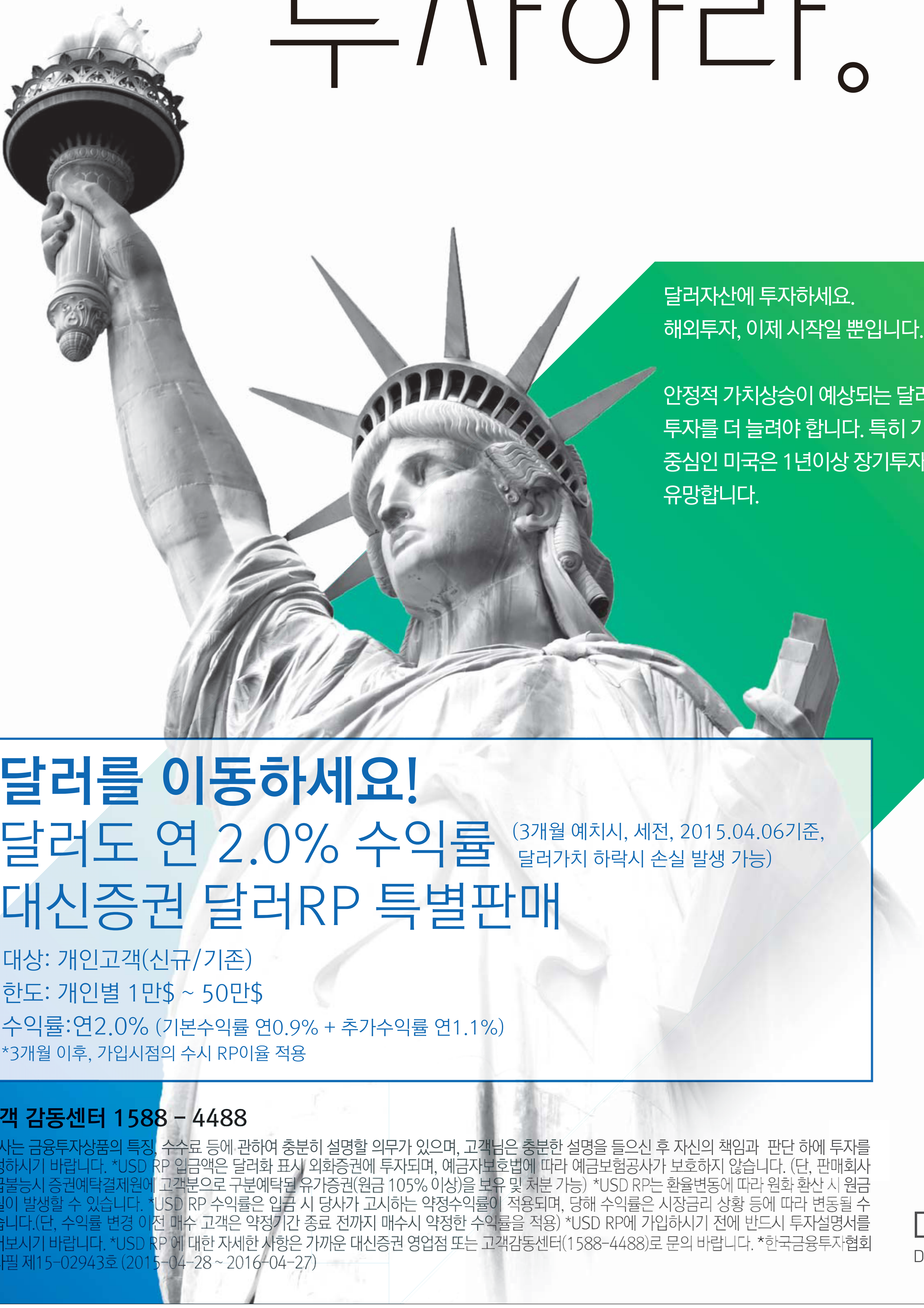
기사제보=02)721-9832

Daishin
House View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